

大韓言論人會 ‘雄飛의 해’ 다짐

홍원기 18대 회장 취임 - 2012 예산안 확정

26차 정기총회 개최

대한언론인회는 1월 2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 26차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홍원기 회장을 제18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본회 임원 선거규정 제6조는 “단일 후보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날 총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단일 후보로 등록한 홍 회장을 만장일치 박수로 당선을 확정했다. 대한언론인회 회장 선거에서 연속 무투표 당선은 1977년 본회 창립 이후 이혜복 고문에 이어 두번째다.

홍 회장은 18대회장 당선인사에서 “대한언론인회는 금년에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행한 후생복지 사업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 확보를 전제로 신규 출판사업 등으로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언론인회 위상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힘을 계획임을 강조하고 인터넷 미디어정보시대에 걸맞는 ‘대한언론’의 뉴스정보전달 체계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임기 중 인터넷 신문 창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사진 2면)

〈상담역〉

김은구(전 조선일보 기자·전 KBS 이사)
윤익한(전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전 무)
한기호(전 한국일보 기자·전문신문협회 회장)



성황을 이룬 대한 언론인회 26차 정기총회장.



정기총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

〈감 사〉

김호기(전 한국경제 사회부장·대우증권 상무)
송호빈(전 한국일보 동경특파원·논설위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부회장〉

김성배(전 대한일보기자·KBS보도제작국장)
윤기병(전 중앙일보 기자·정무1차관)

이병대(전 동아일보 기자·KBS 해설위원)

이태영(전 중앙일보 편집국 섹션국장)
정기정(전 서울신문 월남특파원·마산 MBC 사장)

〈이 사〉

상임이사 : 정운종(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 사 : 김경태(전 서울경제 편집부

국장)

김영효(전 KBS 보도실기자)

김해도(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도준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기병(전 춘천MBC사장·한국기자협회 회장)

박 실(전 한국일보 정치부차장·한국기자협회 회장)

심의표(전 KBS 부산총국장)

안평선(전 KBS 춘천총국장)

윤기로(전 KBS 해설위원)

윤석웅(전 매일경제 증권부장)

정두진(전 CBS 보도국장·전무)

최귀조(전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한중광(전 KBS 파리총국장)

홍원기 18대 회장 약력

덕수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동 차장,
한국일보 상무이사
메트로신문사 상임고문
CBS노컷뉴스 대표이사 회장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 회장
한국ABC 협회 이사 겸 공사제도위원장
서일대학 출판정보학과 강사
(현재) 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일보 사 감사, CBS 노컷뉴스 감사
(수상) 2004년 서울언론인클럽 특별 언론인상 수상
(저서) ‘신문과 세일즈맨십’
‘90년대신문경영(광고·판매)’
‘신문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인생 50년’

大韓言論人會 2012 주요 사업계획

1. 회원복지 친목사업

- 1) 의료비 지원
- 2) 경조비 지원
- 3) 교양 건강강좌
- 4) 언론인장(추도식)
발인 하루 전 추도식 거행
- 5) 체력단련·문화탐방
체력단련(봄철)
문화탐방(가을철)
- 6) 송년회·고회연
- 7) 동호인모임 활성화
- 8) 산악회 기우회 6·25참전동우회 기타
- 9) 여성분과위원회 신설

2.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 NIE교육 강사 추천
- 출판사업(소요 예산지원으로 ‘실록 언론인의 길’ 속편 발행)
- 문화탐방(4회), 명화감상(3회), 송년음악회
- 도서실 집필실 공간 활용

3. ‘대한언론’ 발행

- 기획사 운영으로 재원조달

4. 인터넷신문 창간 추진

- 재원 확충방안 검토

5. 대토론회

- 4월중 언론재단 지원 예상
- 대주제 : 추후 결정

6. 초청토론회(연1회)

- 주요인사 초청 토론회 개최

7. 대한언론상·사진인간애상

- 대한언론상 시상 (10월중)
- 사진인간애상 시상 (4월 7일)

8. 교양 및 건강강좌(16회)

- 건강 및 일반 교양강좌

9. 홈페이지 관리

10. 회원수첩 발행

11. 회원저술문고 설치

- 회원 저술서적 비치 공간확보(서고 등)

12. 대외협력 사업

- KBS제공 실시간 뉴스서비스(현재 실시중)
- 각사 사우회와 유대강화
- 광고주 집중 섭외

“복지 증진 역점… 인터넷 신문 창간 추진”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우선 명예로운 대한언론인회 제18대 회장으로 다시 당선시켜 주신 회우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에 앞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17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대한언론인회가 이룩한 다방면의 성취는 모두 집행부와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힘입은바 큼니다.

특히 ‘한국언론인물사화’ 7권 발행에 이어 70세 이상 회우들이 쓴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을 발행함으로써 우리 언론사는 물론 현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축적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우 여러분의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올 한해는 국내외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18대회장 취임사

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김정일 사망에 따른 3대 세습과 맞물려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론 산업 또한 지난해 연말 4개 종편이 개국됨에 따라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문 산업의 환경은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사회와 언론계 원로인 회우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이



취임인사하는 홍원기 회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월간 대한언론은 창간 이래 단순히 친목 성격의 ‘회보’가 아니라 원로 언론인들이 만드는 매체답게 정론지로서의 품격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익과 언론’ ‘위기의 한국진단’ 등 격조 높은 주제로 회원들의 칼럼과 전문가 논평을 게재, 우리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대한언론은 앞으로 ‘미디어 비평’ 난

을 더욱 보강하여 언론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신문’을 창간, 사회적 공기로써 대한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대한언론인회가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한언론인회 기금확충과 수입증대를 과제로 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난제입니다.

하지만 회우 여러분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재신임해 주신 회우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대한언론인회 집행부 얼굴

상 담 역 (가나다순)

감 사 (가나다순)



김은구 상담역



윤익한 상담역



한기호 상담역



김호기 감사



송효빈 감사

부 회 장 (가나다순)



김성배 부회장



윤기병 부회장



이병대 부회장



이태영 부회장



정기정 부회장

이 사
(가나다순)



정운종 상임이사



김경태 이사



김영호 이사



김해도 이사



도준호 이사



박기병 이사



박 실 이사



심의표 이사



안평선 이사



윤기로 이사



윤석용 이사



정두진 이사



최귀조 이사



한중광 이사

2012예산 2억1천여만원 의결 제130차 이사회, 운영규정도 개정

대한언론인회는 1월 18일 제130차 이사회를 열고 2011년도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17대 회장단 마지막 이사회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일반회계 1억1천2만8,968원, 특별회계 9천26만

5331원의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제26차 총회에서 인준 받기로 했다. 이사회는 한편 본회운영규정 중 분과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했다. [인]

현행	개정
제8장 회보제작위원회 제25조(구성) (1)본회는 회보의 제작 및 출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직무) (1)위원장은 회보의 편집인이 되고 회보제작 및 출판사업을 관장한다. (3)위원회는 회보 발행 및 출판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 11장 홍보섭외위원회 제33조(구성및 기능) (1)본회의 업무를---홍보섭외위원회를 둔다. (2)홍보섭외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그 활동 결과에 대한--- 제13장 신설	제8장 회보제작위원회 제25조(구성) (1)본회는 회보의 제작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직무) (1)회보의 편집인은 본회 회장이 된다. (3)위원회는 회보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11장 홍보출판위원회 제33조(구성및 기능) (1)본회의 업무를---홍보출판위원회를 둔다 (2)홍보출판위원회는 본회의 홍보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장 여성위원회 제35조(구성 및 기능) (1)본회의 여성회우를 중심으로 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2)여성위원회는 여성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선택의 해 ‘衆愚정치’ 막아야 한다

금년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선거의 해인데, 아무래도 관찰자들의 눈에는 걱정이 앞서는 듯하다. 우선 무엇을 두고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상이 분명치 않다. 모바일 투표라든가 여론조사의 정치화는 정당정치를 무력화시켜서 정치투표가 연예인의 인기 투표나 상품시장 조사와 다를 바 없게 돼 버린 것이다. 당원이 없는 정당을 두고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바야흐로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본격적인 시작이 가동될 형편이다. 이것은 입헌주의적 대의정치에 대단히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다. 어느 정당은 당의 재건을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도자의 분명한 노선천명이 없어 그것이 자문기관인지 결정기관인지 해야하기 어렵다. 정당정치의 와해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하는 모습을 금년에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의 체제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뿐이 아니다. 정치세력 간에 국가적 기본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전투가 된다. 통일과 대북관에 있어서 인식의 공통성이 없다는 것은, 세계의 양대 군사적 긴장지역의 하나인 한반도의 한쪽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염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중우정치에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치판은 가히 카오스적인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판에서는, 원래 자유민주적 선거제도의 병폐이기도 하지만 장기적 정책보다 단기성의 달콤한 정책들이 남발되어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외

면하기 일쑤이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형편을 보면 KPop 같은 놀음에 안주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우선, 한 국사회가 산업사회로 변전된 이후 정부기능이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했으나 이것이 20여년간 방치되어 왔었다. 그런 가운데,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정부는 방향타를 상

특별기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정당정치 무력화 인기투표 될 우려 포퓰리즘 난무속 국민판단에 기대

실한 채, 방대한 예산의 낭비로 나라살림을 꾸려 왔었다. 부패는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전시행정, 주인 없는 공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등으로 정부부채는 GDP 대비 56.7%에 이르렀고 가계부채는 900조원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중산층은 몰락하고 사회통합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연 복지정책의 요구가 이런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또한 여간 심각한 과제가 아니다. 지금도 경쟁적으로 정치집단에서 복지문제를 들고 나오기는 하지만 분명한 방향제시

줄인다는가 무상으로 한다든가의 문제가 핵심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체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는 교육비 낭비를 줄일 수 없고 쓸데없는 고학력 실업자들의 양산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금년 양대 선거에서 복지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핵심정책으로 떠오를 판인데, 이것은 좀 더 큰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의 환경이다. 지금 복지문제의 상당부분이 근원적으로 세계화 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다. 세계화

는 분명 효율성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프리드먼의 바람대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것은 지금 그 속의 국가들로 하여금 효율성이나 복지냐의 중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의 현명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이 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재단을 만들었는지 깊이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동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세계화라는 말이 근사하다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슬로건으로 내걸더니 이내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중경제를 내놓더니 재벌들 키우는 결과를 만들었는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충우돌하다가 그 역시 불평등의 심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가적 사고방식으로 세계화의 부정적면만 키워 온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도자들의 식견이 우물안 사고를 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의 통치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통치해 왔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없고, 그야말로 준비 안 된 인기인들이나 끈들을 뽑을 때는 더 더욱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자책하는 후회가 없게 바른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4]

양력, 음력설을 다 넘긴 흑룡의 해.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올해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국내의 총선, 대선, 김정은의 북한, 유로존 경제위기, 이란을 둘러싼 석유위기 등등 어려운 일이 겹쳐산중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국내분위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강성 야당의 출현, 교육현장의 황폐화, 현직판사의 국가원수에 대한 비아냥, 당대표선출을 둘러싼 돈봉투 사건, ‘나꼼수’라는 수준의 언론이 좌지우지 하는 대한민국...

잘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성공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 중동의 뜨거운 건설 현장에서, 해외의 수출전선에서, 국내의 산업현장에서 뛰어온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문이 세계로 열리려는 순간 다시 벼랑으로 굴러 떨어질 것인가.

통합야당의 대표경선에서 2위를 한 후보는 “다 갈아엎어야 한다”, “받은 만큼 되갚아 줄 것이다”라며 이를 간다. 신임야당대표를 포함한 야당인사들은 모두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단단히 버린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시 교육감이 마치 정치탄압을 받은 투사인양 개선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진절머리 난 국민들이 지난 선거 때 청와대와 국회다수당자리를 한나라당에 넘겨주었으나 무엇하나 결기 있게 처리하는 것이 없다. 그저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이 나라 장

래는 생각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어른답게 올바른 소리하는 사람도 없다. 국회의원 한자리가 그렇게 아까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가 이 모양이 되는데 대해 석고대죄하고 이 나라 장래를 위해 무엇인가 할 각오를 왜 못하는지 안타깝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SNS로 선거운동과 정부비판이 허용되면서 앞으로의 선거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언론자유가 신장되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들이 무책임하게, 재미로 퍼뜨리는 거짓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거짓이 진실인양 급속히 퍼져나가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무책임하고 선전, 선동술에 강한 일부 네티즌들이 민중에 파고드는 절묘한 언어로 대중을 선동할 때 그 폐해는 막심할 것

2012 ‘성공의 해’를 위하여



김광섭

·본회 회장
·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현 언론재단 NIE강사

이다. 국민들의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제 총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반도에 부여된 이 모든 어려운 과고를 뛰어 넘을 위대한 영도력과 결단력, 비전을 갖춘 지도자를 골라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이런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김정은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벌써 잊어버리고 북한에 유화정책을 쓰라고 재촉하는 인사가 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정책’과 위의 두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에 대한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는 노력은 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무조건 퍼주기식 보다는 경제지원이 북한정권의 자체변화와 연동되도록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지도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에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통일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유로존 위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경제위기에도 잘 대처해야 한다. 미·이란 대립에 따른 기름값 불안도 견뎌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해도 국제경제상황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통합야당은 무상급식에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인기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책 없는 선심정책에 재정이 골병 든 유럽 사태를 보면서 눈물을 감고 있다. 여당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 국고에서 돈을 펍펍 쓰는 것은 곧 국민혈세를 쓰는 것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젊어지고 가야 할 집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섰고 3만달러를 앞에 두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언제 나락으로 굴러떨어질지 모른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수출은 늘지만 선호하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사장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증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다. 비록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일자리에도 취업하도록 언론과 기성세대는 설득해야 한다.

통합야당은 집권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교육개혁 돼야 학교폭력 잡는다

대구 중학생 자살로 사회 문제가 된 학교폭력 추방과 MB정부 교육개혁이 한달 여 진단만 무성했을 뿐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대전 여고생 자살을 비롯해, 12일 평택 여고생, 20일 대구 중학생, 29일 광주 중학생 등의 연쇄 자살에 이어, 새해 1월에도 16일 대전 여고생이 또 목숨을 끊었다.

교과부는 '학원폭력' '왕따' '인터넷게임 피해' 등 학생자살 원인은 밝혔으나, 본격적인 교육개혁 논의는 피하는 것 같다.

언론이 학교 폭력을 고발하자 대통령은 1월 6일 학생들의 자살과 성추행 피해는 "어마어마한 가정 파괴 비극"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자책감을 느낀다"고 사죄했으나, 석고대죄해야 할 교과부 장관은 격화소양(隔靴搔癢)하며 대국민 공개 사과도 없었다. 대응책으로 관련법 개정·전담경찰관 배치·상담교사 증원·117 신고 등 재탕 삼탕의 대증요법(對症療法)이 발표됐으나 일부 교육자들은 또 한 차례 바람이라며 근본적인 수술을 기피하는 교과부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계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요청된다. 망국적인 교육병 치유를 위해 교과부 개혁과 전교조 눈치를 보는 교육정책을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교육자들은 주장한다.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을 근절하기 위해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됐다. 학교폭력 대책법을 비롯한 교육관련 법령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교과부 기능을 정상화할 기구개편과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MB정부 교과부에

는 교육 이념, 교육 방법, 학생 선택, 교사 직무수행 지도와 평가를 담당했던 장학실과 교과서 편찬을 관장했던 편수관실이 없다. 좌편향 세력의 주장에 밀려 장학실, 편수관실을 없앴 후 학교 폭력·좌편향 이념교육으로 학교가 난장판이 돼도 교과부는 현장을 지도할 전문가, 기구와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전교조 눈치보는 정책 탈피해야 교과부 개편등으로 교권 회복을

제도가 없어 속수무책이며, 학교 질서까지 경찰에 의존해야 하는 무능한 부서로 전락했다.

MB정부 교육 실정을 2012년 어젠다로 던진 대구 중학교 학생자살은 지난해 7월에도 있었다. 대구중학생 자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초등학생 집단 성추행을 비롯해, 대전 여주 이천 평택 광주 등 전국에서 학교 폭력이 난무했는데도 교과부가 지난해 12월14일 청와대에 보고한 2012년 교과부 업무 계획에는 학생자살과 학원폭력 척결대책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 현장과 유리된 교육행정의 문제가 노정된 것이다. 학교 폭력사태를 MB정부 실정

의 하나로 못박은 언론은 교육 행정의 정치화와 '사람 만드는 성적'으로 신성시했던 교사의 교직원 변질을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교육학자들은 학교를 해방구로 방치한 MB정부의 중도실용주의 포퓰리즘 교육 정책이 학교폭력을 조장한 교육 질서 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지탄한다.

교원노조의 좌편향 이념교육과 학생을 방목하는 자유방임교육까지 방관하는 교육행정으로 일부 학교는 인성교육을 포기한 학생수용소로 전락했다고 시민단체는 비난한다. 교사들은 전교조 성향의 좌편향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 인권조례 시행 후 폭력 학생 지도는 더 어렵게 됐다고 털어놓는다. 척박한 조건에서 압축성장 기적의 주역들을 길러냈던 은퇴 교육자들은 교육비가 늘어도 참다운 교육이 사라지고, 교직이 인기 직업이 됐으나 참 스승은 찾기 어렵고, 학생이 급증해도 제자가 없다고 MB정부 교육을 걱정한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폭력 학생의 비행을 봐도 '못본 척'하고, 도와달라는 학생의 호소도 '못들은 척'하고, 학교 폭력 사건을 알아도 '모른 척'한다고 교사의 불성실을 원망한다.

학교 질서 파괴와 학교폭력은 DJ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하면서 교장의 리더십과 전통적인 교육이념이 무력화되고 교사 비행고발센터 상설로 교권이 실추된 시점에서 불붙기 시작해 MB정부의 중도실용교육정책으로 폭발한 것이다. 김·노 정권 10년 좌편향 교육정책을 검증 수정해야 할 MB정부가 전교조와의 공생을 선택하며 교육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친북 전교조 사관으로 집필한 한국사교과서를 MB정부는 학교에 보급하기도 했다. 인수위원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MB정부 집권 중반기에 벌써 교육이념 실종, 교권 추락, 교실 파괴 등으로 공교육은 가사(假死)상태였다. 여러 차례 교육 위기 경고를 무시한 MB정부 교과부의 불성실과 무능이 결국 학원 폭력화와 학생자살 윤리교육 실종 등 교육 붕괴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1월 30일 이명박대통령은 학생·학부모·교사와 3시간동안의 토론을 통해 학교 폭력문제를 재인식했다. 이대통령은 "학생들은 교육부 장관들보다 바른 소리를 했다"며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함부로 종합대책을 발표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공명이 읍참마속(泣斬馬謖)했던 결단으로 교과부 개편 등 교육개혁을 단행해 교권을 회복시키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4]

SNS와 공지영과 표현의 자유

지난해 세계 IT업계 최고 인물이 스티브 잡스였다면, 최고의 기술은 단연코 SNS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북아프리카를 휩쓴 재스민혁명과 'Occupy Wall Street'는 SNS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에서 SNS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한 것은 지난해 10월26일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다. 소위 '1억 원짜리 피부샵' 이용설은 트위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팍팍한 살림살이에 시달리던 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그 결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한자리 숫자 지지율에 머물고 있던 '시민 후보'가 거대 여당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 되는데 1등 공신으로 SNS를 끌어 올렸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북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이나 새로운 정보를 친구들(팔로어)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SNS활용

자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말 현재 국내 트위터 이용자는 544만 명에 이르고 페이스북 북 활용자도 534만명으로 늘어났다.(통계청 발표, 한국의 사회동향 2011) 올해 말이 되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만명을 돌파할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 SNS 활용자 수도 급증할 추세다.

SNS는 비단 정치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언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신대근

·본보 편집위원
·전 MBC보도제작국장
·전 총주·대구 MBC사장

작가 공지영은 우리나라 트위터언론 가운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번째 가는 헤비 트위터언론(많은 팔로어를 갖고 있고 트윗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다. 이외수, 박경철, 김재동, 김여진, 신경민과 함께 선두를 다투고 있다. 우리 문학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소설가인 그녀가 30만 명에 가까운 팔로어를 갖고 있으며 세속의 문제에도 깊숙이 개입하면서 여론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트위터언론 사회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녀가 요즘 트위터언론들 사이에서 논란의 와중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아이러니다. SNS사회에서 선두

를 질주하던 그녀가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손수, 깊은 논쟁의 와중으로 뛰어 들으로써 팔로어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연아선수가 TV조선에 출연하는 것이 그렇게 못 마땅했을까? 자신이 '나는 꿈수다'의 해외공연길에 사넬백(나중에 아니라고 해명했지만)을 메고 800만원이나하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을 다녀오는 것은 괜 찰고, 또 자신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정기 기고를 했으면서도 김연아가 TV조선에 출연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라고 네티즌과 트위터언론들(페이스북 사용자도 포함)이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와중에 공지영의 대처는 이성적이라기 보다 감정에 치우쳤다. "나, 욕 참고 말할게. 알바(아르바이트)다 꺼져라 응?" 이걸 우리 시대 최고의 여성 소설가가 입에 담은 말은 아니지 않는가.

공지영의 사례에서 우리는 SNS가 갖

5면으로 이어집니다.

左派들 從北迷妄 언제 깨어날까

우리는 지금 수출에 있어 세계7대 강국이 되어있다. 우리 한국 뒤에는 그전에 우리가 까마득히 우러러 보던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영국이 따라오고 있다. 해방당시 우리 기술로는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우리가 어느새 조선 강국이 되고 IT강국이 되어있다. 우리가 이 만큼 커졌다는 것은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적을 이뤄내는데 크게 기여한 나라를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미국과 일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으면 사람구실을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내가 나고 처음으로 지독한 반미의 현장을 목격한 것은 70년대 초 북한 땅을 밟고 나서였다. 그때 나는 2차 남북조절위원회남측 취재기자의 한 사람으로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평양에 갔다. 가는 도중 길가와 들판가운데 세워진 선전 문구들을 수없이 봤다. 북한은 ‘구호의 나라’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소름이 끼치는 문구는 ‘미제의 각을 뜨자’였다. 각을 뜬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곁질을 뜯어낸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이토록 섬뜩한 용어를 다른데서는 본 일이 없다. 모르는 해도 북에서는 지금도 이표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을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남북화해도 없고 그들이 지금 열망하고 있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도 없다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일을 가리켜 ‘국방위원장’이라고 깎듯이 부르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칭한 일도 없고 우리 정부를 정부로 인정한 일도 없다. 여전히 ‘괴뢰’ (傀儡)라고 부른다. 한자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우리의 청장년들은 ‘괴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다. 그것은 ‘허수아비’, ‘앞잡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허수아비’나. 남의 ‘앞잡이’

나. 걸핏하면 ‘평화통일’ 하자고 떠들면서 이 무슨 건방진 수작이나. 상대를 당사자로 인정해야 교섭도 되는 것이고 상대를 실제로 인정해야 ‘평화통일’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이다. ‘6자회담’ 아니라 별 것을 다 한다 해도 이런 기본자세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모두 국면을



박현태

- 본회 회우
- 전 국회의원
- 전 KBS사장

였다. 질서가 있을리 없었다. 나라는 풍전 등화였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이른바 좌파들간에 지금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심지어 그때 일체 저항을 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북한의 남침을 용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북주도하의 ‘신성한’ 통일 운동의 일환이었으므로 고요히 땅덩어리를 북에게 넘

나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신문기자였다. 4·19와 5·16 10·26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자세히 보았다. 누가 진실한 애국자였으며 누가 사기꾼이었던 가도 알게 되었다.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심중팔구 사기꾼이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사태를 호도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오래 속일수는 없다.

지금 사법부 일각에서 종북세력들이 날뛰고 있다. 이런 괴상한 현상은 일찍이 없었다. 나는 묻고 싶다. 그대들은 법률사무의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정치의, 경제의 전문가들이나? 정치를 하려거든 미련 없이 법관자리를 버리고 뛰쳐나와 정치인으로 나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평화 중독증’, ‘행복 중독증’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강권정치에는 그다지 호감을 갖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아니었던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연 성립될 수 있었겠는가에 상도하면 나는 그의 치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른바 좌파들은 박대통령의 치적의 결과는 결과대로 향유하면서도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무슨 정신착란적 상태나.

나는 노인들보다는 젊은이들을 더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 용모부터 꾸김살이 없고 참신하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나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믿을 정도로 우매한 사람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된 세계관과 국가통치 방법론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런 숨은 인재가 하루속히 내 앞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필자]

일부 法官 정치적 행태 이해 안돼 우리사회 ‘평화 중독증’ 경계해야

일시적으로 호도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반미, 반일과 종북적 시각을 가진 자들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의심한다.

나는 해방 후에 우리가 겪었던 격심한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경제적 혼란을 기억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도 제 자리에 있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혼란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우리는 김일성 일당이 강행한 남침을 맞았다. 6·25 전쟁이었다. 북한 괴뢰군들은 순식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하였다. 남은 것은, 대구(大邱)와 낙동강 이남, 그리고 경남의 동쪽 절반 뿐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낙동강 교두보’였다. 정부는 서울을 지키지 못하고, 몰리고 몰려 부산으로 천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에는 전국에서 밀려 내려온 피란민과 북한에서 도망나온 난민들의 최종 기착지가 되

겨주는 것이 옳았다 는 것이다. 이것을 방해한 것이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미제의 각을 뜨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그때도 지금도 이 노선을 견지하며 오로지 군비증강,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저 꼴이 되어있다. 다른 무엇으로도 남한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핵폭탄 한발의 개발에 전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핵폭탄 개발을 포기할 수는 도저히 없다. 이것이 오늘의 한반도 정세의 실상이다.

원래 공산주의는 ‘증오의 철학’을 모태로 하고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그들을 상대로 ‘민족’을 논하고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내의 좌파들이여! 종북 세력들이여! 그대들은 언제쯤이나 이런 미망에서 깨어날 것이나.

4면에서 이어집니다.

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읽게 된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은 통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칫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신상을 지나치게 들추어 내는 부작용을 갖고 있고(소위 신상털기)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까지도 누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좌파 내지는 소위 진보진영인사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SNS상의 모든 심의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질서는 ‘원칙적

으로는 자유’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금지’라는 원칙아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외적인 금지마저도 없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제 4월이 문제다. 총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1500여명은 앞으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 나경원을 낙선시킨 1억원 피부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개인적인 치부까지 폭로될 각오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가운데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규정(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선관위도 4월 총선에서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당일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번 총선거는 그야말로 SNS선거가 될 판이다.

미국 도로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 턴(U turn) 표지판을 찾을 수 없

다. 그 대신 가끔이지만 유 턴 금지표지판을 발견하게 된다. 위에서 지적한 바 원칙적인 자유와 예외적인 금지에 기반을 둔 조치다. 우리는 유 턴은 특정지역에서만 허용되지만 미국은 금지구역 이외에서는 항상 허용되는 것이다.

자, 이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무제한 허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항상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 자신 헤비 트위테리언인 해민(惠敏·39)스님은 9만여명의 팔로어를 갖고 있다. 스님이면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프셔대학교수인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삶의 지혜란 굳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깊이 새겨볼 만하지 않은가. [필자]

3면에서 이어집니다.

국가간의 조약을 이렇게 폐기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한미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지 모른다.

이러고도 한중FTA를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의 FTA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용도는?

정치가 이렇게 어지러운 와중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공사예산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거의 삭감됐다. 이 해군기지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해상로를 확보하고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일부 시위꾼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 이러한 문제도 차기 지도자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모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필자]

우리 고유의 말-글이 위태롭다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 우리가 듣고 보는 말과 글은 이미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고 낯선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말과 한글은 현존하는 세계 7,000여개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데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마구 쓰이는 바람에 근본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은 자기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손짓 발짓과 얼굴표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약간에 그친다. 감정과 진정성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언어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다.

그래서 고대와 현대, 지역 간, 인종 간, 계층 간, 남녀노소 간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와 구사방법에 다름이 존재한다. 수많은 언어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과 글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일제의 강점기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도 바로 말과 글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마저 잃게 된다는 경각심 때문이었다. 해방을 맞은 뒤 우리말에서 일제의 대표적 잔재인 일본말을 벗겨내는 데에 거의 한세대가 걸렸다. 그리고 나서야 경제 부흥과 민주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언어의 침략을 받고 있다. 영어라는 괴물이다. 우리가 소위 세계화로 지구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사용인구가 많은 영어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 몰입은 아닌 것이다. 외국어는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한 부수적인 소통도구일 뿐 우리의 기본 소통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가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첫 번째는 3~4명씩 모여 앉아 10분 동안 영어단어를 한 개 사용할 때마다 1점씩의 별점을 받도록 했다. 채 5분도 되지 않아 20점이 쌓였고 10분이 지난 뒤에는 32점에 이르렀다. 게임을 중지하고 녹음을 재생하면서 검토해보았다. 평균 다섯 마디에 한 마디씩 영어를 사용했다. 라디오 텔레비전 등 토착화된 단어

를 제외하고서였다.

다음엔 사용한 영어단어 대신 우리말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토의했다.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는 스트레스, 센서티브, 딜레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스트레스의 대치 언어를 찾아보도록 했다. 억압, 긴장 등을 쉽게 말했다. 다음은 짧은 문장을 만들기로



최병요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민족-국가의 정체성 실종 우려 영상 매체 등 올바른 교육 절실

했다. ‘새로 온 부장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대신 ‘부장이 새로 와 꽤 긴장돼.’의 두 대화 중 어느 쪽의 표현이 더 쉽게 와 닿느냐 했더니 대부분 전자를 들었다.

그리고 딜레이를 주제로 토론했다.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생고생했어.’ 대신으로 ‘비행기가 지연되어 생고생~’ ‘비행기가 늦게 도착 생고생~’ ‘비행기 연착으로 고생 좀 했지’ 등의 답이 나왔다. 토론에서 굳이 딜레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을 보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납대문 소실, 국보1호, 1398년 건립’을 내용으로 단문을 짓도록 했다. ‘1398년에 지어진 국보1호 납대문이 완전히 불탔다.’가 대표적인 답안이었다. 우리의 어법과 문법은커녕 영문법에도 맞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여기서의 문제는 ‘지어졌다’는 타동사이다. 우리말에는 ‘지어진 건물’ ‘쓰여진 책’ 등의 타동사와 수동태 표현이 거의 없다. 국어사전에 ‘지어지다’라는 단어는 없다. 또 영문법에서 수동태를 쓰려면 일반적으로 ‘~에 의해서’라는 문구가 따라주어야 한다.

최근 아주 많이 팔린다는 인기서적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을 찾는데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듣거나 읽고 있는 말과 글이 대부분 이러한 형태다. 우리말과 글이 아닌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어, 특히 인칭대명사를 가급적 생략한다는 것이다. 우리말 표현의 중점은 목적어와 동사에 있다. ‘어디 가니?’ ‘밥 먹었니?’ ‘전화할 게.’이지 ‘너 어디 가니?’ ‘너 밥 먹었니?’ ‘너에게 전화할 게.’처럼 영문표현에서 중점을 두는 주어 또는 인칭대명사가 무시된다.

영문을 번역할 때 이처럼 단어 하나 하나를 직역하여 삽입하면 그것은 영문의 한글 작업이지 우리말번역은 아니다. 또 있다. ‘가족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이다. 이 역시 우리말의 특징인 단·복수 무시를 모르는데서 나온 오류다. ‘가족들’이라면 나의 가족이 있고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말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달리 거느리는 가족이 있을 때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영어

야 주어의 단·복수에 따라 인칭대명사와 동사가 바뀌는 문법이지만 국어는 패념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등은 전형적인 서구식 표현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오로지 일본식 표현이다.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고 감정이다. 하기가 나폴레옹의 전기에 나오는 ‘나는 불가능을 모른다.’가 우리에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 번역이라면 ‘나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모른다.’일 것이다.

서두에 지적한 것처럼 말과 글은 소통의 수단이다. 소통이 잘 되려면 서로 잘 통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과 심오한 철학을 얘기해도 그 깊이와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손짓 발짓만 못하고 장단 맞지 않는 팽과리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말과 글은 또 정체성이기도 하다. 우리가 세계화를 논하고 선진화를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이지 지금의 선진문물국가의 틀러리가 되고자 함은 아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 있게 내세울 것 중의 첫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인 말과 글이다. 외국어를 잘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우리말을 외국어에 종속시키면 우리의 정체성도 종속되고 만다.

우리의 말과 글을 바로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배운 자, 힘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가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 후학을 가르치는 사람, 계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 운통 시선을 빼앗고 있는 영상매체의 올바른 말과 글의 사용의지와 노력이 절대 요구된다.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해 ‘미래는 어른에게 달려있다’라는 주장을 편바 있다. 미래의 주역은 청소년이지만 그 주역을 주역답게 가꾸는 책임은 어른에게 달려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교육에 몰입하여 영어 하나만큼은 어른을 뺀치게 잘 하지만 우리말을 하라 하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언행은 물론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어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4]

스탈린의 유해는 당초 연구보존한다고 미라로 만들어 모스크바의 레닌묘(廟)안에 안치했었다. 그후 소련 공산당 제1서기 흐루시초프의 두 번에 걸친 ‘스탈린 비판’으로 8년만에 신격(神格)에서 격하(格下), 화장되어 크렘린벽가의 유공자묘지에 매장되었다.

‘신(神)은 없다’며 종교를 탄압해온 사회주의국가에서 과거의 지도자를 신격화할 목적으로 그 유해를 미라로 만들어 묘(廟)에 안치 공개하고 있다. 레닌묘, 스탈린묘(철거됨), 모택동묘(毛澤東記念堂), 김일성묘(錦繡山記念宮殿), 호치민묘 등인데, 얼마전 사망한 북한의 김정일도 신격화 한다고 미라가 되어 아버지묘 옆에 안치 되었다. 사회주의를 통달한 염라대왕이 알면 대로할 일이다.

스탈린의 廟와 墓

중학교 이과(理科)시간에서 배운 미라는 ‘자연조건에 의해 건조되어 장기간 원형을 유지하는 시체’라 했다. 그것은 미처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나가는 영혼을 부여잡고 성불(成佛)하기를 애원하는 모습으로 보여 연민을 느끼곤 했었다.

이 자연산 미라와는 달리 묘에 안치되는 미라는 인공적으로 유해



김귀제

·본회 원로 회우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를 절개하고 세정(洗淨)한 후 엠버밍(embalming)이라는 시체방부(防腐)처리, 위생보전처리 등 화학적 및 외과학적 과정을 거친후 조신(調身)과 화장까지 하고 유리관에 입관된다. 싫어도 속세에 오래 머물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스탈린이 죽고 소련이 멸망, 러시아가 탄

생한지 10년째되는 2002년 5월 그곳을 다녀왔다. 제정(帝政)러시아의 전제(專制)와 공산당 소련의 독재, 그리고 신생 러시아의 혼란 등 세가지가 공존하는 세상은 몹시 혼란스러웠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민족의 동족상잔 6·25 전쟁을 뒤에서 조종하고, 소련거주 한(韓)민족을 강제로 집단이주 시키면서 많은 목숨을 앗은 세기의 흉물 스탈린이 미라가 되어 허풍을 떨다가 화장터로 끌려간, 두 번 죽은 경로를 현지에서 더듬어 보았다.

붉은군대의 퍼레이드로 낮익은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의 크렘린벽쪽 일대에는 묘가 많았다.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 부터 1984년까지 사회주의와 공산

정당정치 붕괴... 위기냐 기회냐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이데올로기로 생존하고 앞으로도 연명할 것이다. 한 때 세기의 유령으로 횡행했던 사회주의는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졌지만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 이래 2000년이 지나도록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면서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지구촌 인구의 팽창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 자유·평등·인권이라는 기본가치는 변함없이 지켜나가고 있다.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도 유리그릇 같아서 잘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깨지기 쉽다. 국보나 보석 같은 귀금속은 금고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잘 관리해야 도둑도 안 맞고 수명을 연장하듯이 민주주의도 인류에게 행복한 가치를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고 정성껏 관리해야만 한다.

이런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시련을 겪고 깨질 위기에 놓여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과 그 정당을 움직이는 기성 정치인이 제구실을 못하고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케 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며 소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신장시켜야 하는데도 거대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길거리 싸움닭으로 변했다.

협상과 타협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로 생산적인 정당정치의 실현무대가 되어야 할 여의도 1번지 국회의사당은 도끼와 전기톱과 물대포 등장에 이어 마침내 최루탄까지 터진 아수라장 난장판의 몸싸움 격투기장으로 사용돼 심심찮게 외신의 토픽 발생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민의의 전당으로 여야가 타협과 양보를 통해 국민의 의사와 바라는 바를 실현시킬 국회의사당은 ‘개혁 없는 보수 여당과 합리성을 상실한 진보 야당’의 거대한 실내 격투장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사당이 거대한 격투장이라면 국회의원은 검투사였다. 공중부양과 농성과 집단패싸움과 폭탄까지 던지는 동네 삼류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독립투사인양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모습은 코미디 수준을 넘어 차라리 비극에 가깝다. 이 같은 거친 행동 외에 정치자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정치자금법에 위반된 돈을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하는 게 오늘날의 국회의원 모습이다. 검사·판사 출신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법조인 이익보호에 앞장서고, 다른 의원들도 로비성 청탁을 국민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서 입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계진 전 의원처럼 법으로 허용된 정치자금도 한 톨 안 받은 의원은 천연기념물이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청렴’은 무능력으로 인정하고 정치자금을 많이 모은 의원을 유능한 의원으로 취급한다.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 리뷰 정책고문

과다. 아무리 용을 써도 한나라당 지지도의 절반을 넘지 못하며 재보선에서 다른 야당과 연합공천으로 선거를 치렀던 50% 정당으로서의 존립이 어려웠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당대표 투표의 SNS 비당원 참여 흥행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지지도에서

폭력 얼룩진 의사당 불신 초래 국회의원 첫째조건 “청렴”돼야

한국의 정당과 국회의원 등 기성정치인의 행태가 이러하니까 국민들은 기성정당과 정치인을 불신하고 무당파가 늘어나고 있다. 안철수 신드롬은 기성정당과 정치인의 불신이 가져온 결과다. 정당과 정치인이 민주주의라는 유리그릇을 깨트리고 있다.

정당정치 활성화돼야 민주주의 산다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진통과 흥역을 치르면서 개혁과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기성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처절한 불신과 반발을 여망으로 바꾸기 위해 여야 모두 환골탈태의 극약처방을 단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하루빨리 정당이 정체성을 찾고 정당정치가 복원돼 활성화해야 민주주의가 빛을 발하고 살아나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당에 매섭게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당의 혁신작업에 기대를 거는 이

한나라당을 앞섰다.

통합민주당은 창당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당 대 당 통합이나 새로운 비전의 창당으로 보기에는 쉽게 수긍이 안 된다. 정책이나 인물구성 등을 볼때 열린우리당으로의 회귀이기 때문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이혼한 부부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결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분위기로 봐선 4월 총선은 선전하겠지만 12월 대선에서 독자후보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문제인 한명숙 정동영 등이 한나라당 절대후보인 박근혜에 비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처럼 대선에서도 안철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130개의 정당이 이름을 바꾸면서 창당했지만 이념, 정책, 전통보다는 정치지도자의 야망에 의해 창당하거나 당명을 바꿔왔다. 또 는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전국규

모 보다는 특정지역만을 기반으로 한 정당을 창당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당이 국민의 여망이나 사회적 변화, 새로운 비전과는 상관없이 정치지도자의 필요에 의해 당이 만들어졌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실정, 친이계와 친박계의 주도권 싸움, 국정주도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와해직전에 이르렀다. 재창당, 당명 변경 등 갖가지 쇄신방안이 난무하다가 가까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컴백시켰다. 한나라당이 쇄신하려면 재창당이나 당명 변경이 아니라 인적 물갈이와 서민을 위한 정책제시로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 개혁의 핵심은 국민 입장에서 출발함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야

국민들이 느끼는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는 첫째도 둘째도 부패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보다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해서 일한다는 인식이 국민의 뇌에 각인되어 있다. 국회 본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매번 정시에 개회를 못하고 상임위 또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고, 설령 개최된다 해도 의석은 텅텅 비어있다. 국회의원에게 국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사에는 무성의 하면서도 자신들의 세비인상과 연금, 보좌관 증원에는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철도와 항공 이용, 우편요금 무료로 승용차 기름까지 제공받고, 1년에 1억원 이상 세비에 선출직이면서 자녀 학자금까지 챙기면서도 이권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개입한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비롯해 무슨 게이트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 이름 한 둘은 어김없이 들어 있다. 정치자금이란 미명으로 부정한 돈도 마구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부패에 대한 무감각이 문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의 첫째조건으로 청렴을 꼽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수록 좋다.

정당 혁신과 정치인 부패 척결 못지 않게 중요한 민주적 가치가 국민의 선택이다. 국민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다.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도 중요하다. 여야의 정당 혁신에 국민적 기대를 건다. [주]

6면에서 이어집니다.

당정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이 이른바 ‘크렘린의 벽’에 잠들고 있는 것이다.

광장 한복판 벽 가까이에 붉은 화강암의 계단식 피라미트로 지은 레닌묘가 자리하고, 그 오른쪽 뒤에 스탈린을 포함한 12주의 유공자 흉상(胸像)기둥이 횡렬로 서 있다. 다음 서열로 크렘린벽 속에 1백15구의 유골이 납골되고 그들의 플레이트에는 이름과 생몰(生沒)연월일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벽 가를 따라 기다란 터가 ‘영웅묘지’인데 여기에는 여러개의 플레이트에 그룹별로 이

름이 새겨져 있었다.

스탈린은 이 묘역에서 2차에 걸친 ‘스탈린 비판’과 공산당대회의 유체절거결의에 명들면서 생전의 독재 숙청 개인숭배 등 믿기 어려운 최악상 전모가 온 세상에 폭로 된 것이다.

소련 최후의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주의의 원흉은 레닌”이라고 돌을 싸잡아 비난하여 레닌묘 철거문제가 불거졌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스탈린에 대한 재평가 문제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등, 붉은광장 일대는 또 한차례 거센 회오리바람이 불게 될 것 같다.

사회주의의 옷을 벗은 신생 러시아에서 정의의 힘과 그 행방이 어떠한 것인

지 아직은 헤아릴수 없으나 과거의 어두운 ‘부(負)의 유산’에 대한 중요성은 그리 쉽게 변질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고 1천2백60만명의 목숨을 앗은 ‘20세기 최대의 학살자’ 스탈린이 유공자묘지에 버젓이 누워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류는 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남겼다. 그 속에는 인류가 범한 죄를 증명할 ‘부(負)의 유산’이 많이 끼어 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노예무역의 거점인 세네갈의 고레섬(島), 핵무기의 참상인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원폭 돔, 탈레

반이 바미안의 석불 등을 파괴한 아프가니스탄의 고대유적 등...

‘부의 유산’을 남기는 전쟁과 파괴 학살 핵무기 등을 극구 피해야 한다. 그것들은 무슨 줄을 타고 접근해 오는 것일까. 이념 빈곤 인종차별 소득과분배 등일까? 그렇다. 무엇보다도 독재자의 횡포를 먼저 막아야 후환이 없다.

어느 역사학자의 회고록 한 구절이 떠오른다. “독재자 묘의 처리에는 언제나 많은 시비와 문제가 뒤따른다. 나치 독일 히틀러의 묘가 아직까지 없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것들은 영원히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

SNS 선거운동 역기능 지적 소홀

지능형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량 보급으로 우리나라는 사상최대의 정보 홍수에 떠밀려가고 있다. 4월 19대 총선과 12월 18대 대선에서 모바일 기기의 위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소위 투표했다는 ‘인증샷’이 트위터를 도배질했다. 민의의 화려한 분출이라기보다는 특정 세대가 주도하는 민의의 왜곡과 경사를 우려해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야권의 여당후보를 겨냥한 막가와 식 폭로는 140자로 쓰는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퍼졌으며 이런 유언비어는 즉시 회복이 불가능해 민의의 정당한 심판을 상당히 왜곡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낸 소송은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법은 멀고 인터넷은 가까운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1월13일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상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했다.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의 적용을 보류한 것이다. 이는 작년 말 현재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녹음테이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SNS가 포함되는 것으로 단속해왔으나, 현재는 트위터, UCC, 인터넷, 블로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하나의 유기체로 거의 통제 불능상태인 SNS에 즉각적인 자정적 기능이 있다는 착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보의 빈부격차를 무시한 노년층 박대, 청년층 우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SNS는 누구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다. 인증샷을 날릴 스마트폰이라면 월 3만원 이상 통신비를 내는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한다. 선관위는 SNS 이용자들의 성분상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히 여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1월18일 “선관위와 각을 세우자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차분히 정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는 당일 선거운동을 못하는데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당일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했다. 신지호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아직 유효하다. 국회 정개특위가 현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알리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선거 당일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되고, 전화를 비롯한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1월14일 ‘인터넷 선거운동 상

시 허용, 숙제가 많다’는 사실에서 “당장 4·11 총선이 인터넷 파도에 휩쓸리게 됐다. SNS나 인터넷 공간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주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부터 그렇다.

흑색선전 등 오남용 막을 장치 시급 좌파 선동적 구호로 민의 왜곡 우려

254조까지 어떻게 건드릴지 말지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를 비난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신문들은 흑색선전 방지 대책과 온·오프라인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월14일 사설에서 “문제는 온·남용이다. 후보자에 대한 각종 흑색선전·비방·명예훼손 등을 제때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이 당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승패에 영향을 미칠 때 선관위는 어떻게 적시에 제동을 걸고, 처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가능한

‘온라인 논객’들의 입김이 커질 것이다. 이들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권 경쟁 또한 뜨거울 수밖에 없다”면서 “온라인의 사전 선거운동은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1월13일 사설에서 “온라인상에서 불법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연령이나 계층, 경제력 등에 따라 인터넷 활용 수준이 여전히 균등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소수의 목소리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터넷 소외계층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이 1월16일 모바일 선거운동과 관련 허위·비방의 내용을 담은 문

자메시지 500건 이상, 유인물 500부 이상을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경향신문은 17일 사설에서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이 자칫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축시켜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도리어 편파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지기반으로 볼 때 SNS는 우파보다 좌파들이 많이 쓸 것이 명약관화하다. 단속 건수도 좌파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선 모바일 참여가 주류를 이뤘다. 동아일보는 ‘모바일 팬클럽 정치, 민주주의 위기 키운다’라는 1월13일 사설에서 “모바일 투표를 평균적인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응집력이 강한 세력이 모바일 표심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은 차별하고 논리적인 정책보다는 선동적 구호에 끌려들 것이다. 모바일에 강한 젊은 세대가 과다(過多) 대표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고 모바일 만능을 비판했다.

사이버 선거운동의 전면 허용은 냉정한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양극화한 정치판과 미디어 세계에 사이버 정쟁(政爭)의 상시화를 불러올 것이다. 선관위는 사이버 불법행위를 단속할 능력이 모자란다. 이를테면 대전광역시에 전담인원이 3명뿐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운동을 활짝 열기 전에 먼저 디도스 공격에 서버의 대문을 막지 못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장과 관계 책임자들은 응분의 책임이 있다.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선관위의 인식은 좋다. 그러나 말도 말 나름이다. 선거운동 때 패거리들이 똥똥 뭉치는 SNS가 마치 선량한 민의의 보고인양 나긋나긋하게 보는 선관위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신문들은 보다 강력하게 질책했어야 했다. 오프라인 세상의 축소판인 디지털 포퓰리즘의 세계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라고. [W]

작년에 ‘종편’이 개국하기 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 말이 기억난다. “종편은 걸음마를 할 때까지 정부에서 도와 줘야한다”고 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랩(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 국회 문방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종편’의 모든 절차는 다 끝난다. 이번에 문방위에서 통과된 ‘미디어랩’법은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까지 하도록 하는 특혜까지 줬다. 거기에다가 권역별 방송을 무시하고 전국 방송을 하게 했고, 공중파방송과 인접해 있는 황금채널까지 배정을 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데는 막강한 신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문의 힘을 빌려 기업주들에게 광고압력은 물론 협찬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3년 동안이나 지루하게 끌어왔던 ‘종합편성채널’은 마침내 작년 12월1일 개국을 하더니 지난1월5일에는 국회 문방

종편TV와 콘텐츠 개발

위가 ‘미디어랩’ 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1분여 만에 그것도 심야에 의결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KBS·EBS·MBC 등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는 ‘종편’ 각자가 앞으로 3년간 직접 영업을 하도록 하는 특혜도 주었다. SBS도 민영 ‘미디어랩’을 설립 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40%의 소유지분을 갖게 돼 이 또한 특혜를 준 것이다.



김현선

·본회 회우
·전 MBC 보도국장
·현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정연우 세명대학교수는 “한 방송사에 1인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 것은 방송사에 광고영업권을 내준 것과 다를 바 없고, 보도와 광고의 칸막이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는 반대로 MBC는 종교방송은 물론 시청률이 낮은 ‘지역방송’까지 광고영업(끼워 팔기)을 해주는 ‘공영미디어랩’에 편입돼 불만이 대단하다.

특혜는 또 있다. 이번에 태어난 조·중·동 등 4개방송사는 황금채널을 부여

받았다. 황금채널은 공중파 방송(6. 7. 9. 11. 13번)에 인접해 있는 것을 말한다. 공중파방송에 붙어 있는 14번 채널에서 20번까지를 배정 받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 TV’는 전국적으로 19번을 배정받아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 TV에서 19번만 틀면 조선TV를 볼 수 있게끔 했다. 이는 KBS1과 YTN을 제외한 공중파인 KBS2나 MBC 그리고 어느 민간방송에도 없는 특혜 중에 특혜다. 물론 사업자(SO)간의 합의 사항이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문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방송가의 관측이다. MBC나 KBS2 또는 SBS와 계약한 지방방송사는 그 지역에서 ‘로컬방송’(지역 민방은 30%)을 하도록 방통위가 권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국한 조·중·동 등 4개 채널은 곧바로 로컬프로그램 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전국 방송을 하게 허가함으로써 서울 프로그램과 광고가

9면으로 이어집니다.

종편TV, 시사 대담 프로 눈길 끌어

TV프로그램 중 가장 미워하는 프로그램이 토론 프로그램이다. 지식인이라든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추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TV채널 서핑을 하다보면 TV토론을 접하게 된다. 출연자들을 보면서 저 친구 또 무슨 억지를 쓰려고 하나. 어그 사람 멋진 말하네!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결국은 심한 부아가 치밀곤 한다.

필자는 본보에 토론문화와 TV토론에 대한 글을 몇 차례 쓴 적이 있다.

지난 2009년 6월 논단을 통해 “잘못된 토론 문화로 우리 사회는 갈등의 암에 걸렸으며 갈등의 암세포가 구석구석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연평도 사건 얼마 후 방영된 TV토론을 보고는 작년 1월호 방송시평에서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가 그 방송을 시청한다고 상정하고 글을 썼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지 그리고 저 박사는 남조선 인민들의 깊은 생각까지도 잘 분석해주고 있으니 최고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교수는 남조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내막까지 소상히 알려 주네요. 앞으로 작전에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ㄱㄱ”라고 안보에 무감각한 TV토론을 꼬집었다.

다음은 지난 11월호 방송시평에서 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한 TV토론을 시청한 후 지적한 부분이다.

“방송사들이 그런 주제에 그런 인사들에게 싸움판을 만들어 준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뜻을 모으고 화합을 다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다투고 갈등하고 싸움질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부추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과 갈등을 키우는 방송은 나쁜 방송인 것이다.”

갈등부추기는 행태 지양을

갈등을 부추기는 방송행태에 나쁜 방송이란 혹평을 하기도 했다. 시청률에 매달려야 하고 여론의 눈치도 봐야하는 당당하지 못한 공중파 방송의 이런 방송 행태가 쉽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새로 출발한 종합편성 채널들도 여건이 공중파에 못하면 못했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걸기는 힘들 것

이다. 그런데 채널 서핑을 하면서 만난 종편 방송들의 시사 대담프로가 공중파의 토론프로 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먼저 TV조선의 〈최·박의 시사토크 판〉은 “매일 최고의 이슈 메이커를 발 빠르게 초대해 불편하지만 진실을, 피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하는 진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들려드린다”고 내세운다.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판〉은 우선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방송시평



호천웅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LA 지국장
- 수필가

행에서도 오락림 변호사의 질문이 날카롭고 전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채널A의 시사대담프로인 〈박종진의 왜도난마〉는 같은 문제에 대해 몇 명의 출연자가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공중파 방송의 TV토론과 유사한 형태를 이룬다. 채널A는 기획의도에서 “꼬이고 얽힌 정치, 사회, 문화, 인생을 유쾌하고 시원하게 풀어낸다”고 밝히고 있으나 유쾌하고 시원하게 풀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실제로 1월18일 포스트 김정은 시대

인터뷰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 제작물의 사회자는 기자나 아나운서가 아니었고 두 명의 남자 코미디언과 한 명의 여자 탤런트였다.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진행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출연자들이 아주 편하고 쉽게, 재미있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상당히 높았으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분의 인기도도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PD들이 한 모임에서 “PD들 정신 차려야 해”라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아나운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자들은, 지도자들은, 지식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미가 절대선인 시대, 필요보다는 감정에 몰입된 세대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선동이 강력한 통치권인 시대에 살고 있다.

꾸짖어도 예절은 지켜야

스마트폰을 통해 나꼼수 방송을 들어봤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 방송을 즐겨 듣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방송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았다. 그러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크게 나라를 망친다는 말을 생각해야 했다. 권력자들의 비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고 마땅히 응징 받아야 한다. 그러나 꾸짖어도 예절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범죄를 덮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입에 담기도 거북한 ‘씨바?’란 말을 거침없이 계속해서 내뱉는 방송, 그게 특수 방송이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방송에서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선동인가, 패륜인가.

그런 방송을 하는 자들 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방송이 뿌리내리고 통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나라도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참담함을 견디기 힘들었다. 저런 패거리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다른 패거리들이 또 저런 짓거리로 그들을 상대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악순환은 어디서 비롯됐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언론에 그리고 영향력 1위라는 방송에 아주 작은 기대를 걸어본다. [4]

기존공중파의 토론프로보다 신선 SBS 인터뷰 새로운 진행 돋보여

첫 회에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인터뷰를 〈판〉으로 소화한 기획부터 좋았고 이계진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돈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소득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박세일 국민생각창립준비위원장 등의 출연에서도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짜증에서 자유롭다는 점만으로도 좋았다. 남녀 두 앵커들의 진행은 무난하고 특히 박은주 앵커의 수더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진행에 호감이 갔다. 최희준 앵커의 진행도 수준급이지만 때로는 사실이 너무 길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말미에 던지는 거수경례의 의미는 치기 섞인 장난기로 보이기도 한다.

JTBC의 〈악마의 질문/선의를 비판자〉도 “이슈의 주인공을 초대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한방에 풀어주고 팩트(사실) 제일주의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기획 의도는 바람직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프로그램 진

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사들은 각기 다른 견해와 전망을 내놓아 토론 혹은 논쟁의 바로 직전까지 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TV에 출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잘 모르면 말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프로 전반 성찰 필요

종편의 등장이라는 방송계의 변화에 즈음해서 TV 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토론의 유익함과 다양화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토론 보다는 설득이, 설득보다는 대화가 더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

시평을 마감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본다. 지난해 말 SBS가 여야 대권후보로 예상되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8면에서 이어집니다.

지 전국에 동일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역 민방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 앞으로 지역 방송이 문을 닫지 말라는 법도 없다,

광고는 방송에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으로 치면 피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TV를 많이 봐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기업주들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사서) 고광고주가 된다. 그런데 ‘종편’들은 개국을 하자마자 대기업들에 광고를 강요하는가하면 협찬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개국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

보라는 막강한 신문의 힘을 등에 업고 기업주들에게 광고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한 달간의 조·중·동TV 시청률을 보면 평균 0.3%대로 나타나있다.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JTBC가 0.428%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 MBN채널이 0.344%이고, TV조선이 0.321%이며, 채널A가 0.302%이다. 특히 매일경제는 종전에 0.5%대였으나 오히려 ‘종편’에 편입되고 나서부터 0.3%대로 하락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청률은 인기 있는 같은 케이블 TV와도 차이가 많으며, 더구나 지상파와는 그 차이가 더 크다. 이런데도 어느 종편에서는 지상파의 70%에 해당하는 광고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만들어진 ‘미디어렐’법은 ‘종편’ 특혜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편’의 채널도 지상파와 인접한 이른바 ‘황금채널’로 배정을 받았고 TV조선을 비롯한 4개의 종편을 전국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는 조치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인 한나라당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조·중·동에 편의를 봐 줬다는 평가다.

이제 주사위는 거의 던져진 셈이다. TV는 광고가 말하는 법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이 보는 TV를 만들어야 한다. 시청률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수년간

연구와 경험 투자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안 보고는 못 배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시청자가 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선정적이거나 반문화적인 콘텐츠가 되어서는 안된다. ‘종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화 시킨다는 허가 취지를 살려 고품격의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청자들이 ‘종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옛날 그래왔던 것처럼, 저녁 9시 반에 방송되는 연속극을 보기위해 퇴근하자마자 곧 바로 집으로 달려오던 그런 시절 말이다. [4]

권력에 앓긴 ‘活字人生의 꿈...’ “그러나 나

“내 세울 것도 없고 기억도 가물가물한 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자는 건지...”

인터뷰를 사양하는 위상욱(韋相旭·80) 본회 회우를 지난 1월 13일 여의도 양카라공원부근에 위치한 고려빌딩 8층 ‘위성시스템’ 회장실에서 만났다. 한 쪽 벽면을 가득채운 서적, 테이블과 소파가 가지런히 놓인 소박하고 작은 공간이다. 방주인도 아담한 키에 소탈하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활자 인생’을 실꾸리처럼 풀어낸다. 이름과 연도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이래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더니까?”하며 미안해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나이 들어 가물거리는 기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위성시스템’은 어떤 회사인가?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워낙 문외한이라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요. 미국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큰 아들(재성·50)이 대표로 있고, 둘째(재현·47)와 함께 운영해요. 커피를 가지고 온 사람은 큰 며느리죠. 오전에 사무실에 들러 신문을 보고 책이나 읽다가 나가는 게 고작입니다.”

1991년도에 창립한 ‘위성시스템’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의 시스템 구축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지털 영상과 3D 편집 등을 하는 첨단업체다.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위상욱 회우는 고려대 정법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듬해인 1957년 한국일보 견습 5기로 언론계에 투신,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과 조선일보 제2사회부장을 거쳐 ‘주간시민(주)’과 새마을신문을 창간한 발행인이다.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는데 공채시험에 합격했고,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추억을 먹고 산다는 실버세대 특유의 자기과시와 수식 없이 솔직담백하게 지난날을 반추한다.

“시경을 출입하던 선배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자 당시 김현제(金顯濟) 사회부장이 수습딱지도 안 떨어진 내게 시경 출입을 하라고 지시하여 맡게 된 것도, 출입처에 나간 첫날 큰 사건을 놓치지 않은 것도 운이 좋은 때문이죠” 기자의 감각으로 낚아 올린 특종도 운이 좋은 것으로 돌린다.

시경에 나간 첫날 분위기가 이상하게 술렁거렸다. 뭔가 낯새를 느낀 韋기자는 시경국장 비서실의 젊은이를 잡고 무슨 일인가 다그치니 YMCA 부근으로 가보라고 귀뜸해 준다. 1958년 1월 13일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曹奉岩)을 비롯한 간부들을 체포하던 날이다. 진보당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평화통일 방안을 주장한다는 혐의로 조봉암이 사형당한 ‘진보당사건’이다.

이듬해 김현제 부장이 자유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가면서 본인 의사는 묻지도 않고 韋 기자의 입사발령 방을 붙여 옮기게 됐다. 자유신문사에서는 서울시청과 재무부를 출입했다. 김현제 국장이 서울경제신문 창간 국장으로 가면서 韋 기자는 창간 멤버로 다시 한국일보사와

인연을 맺었다. 5·16 이후 병역기피자로 퇴사했으나 장기영 사주가 불러 한국일보로 복귀, 사회부 차장으로 서울시청을 출입하게 된다. 그는 당시 ‘100억원의 행방’이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서 서울시청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했고, 윤치영(尹致暎) 서울시장이 인책 사임하게 됐다. 1966년 4월, 43세의 최연소 김현옥(金玄玉) 서울시장이 취임했고 그와 오랜 인연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새마을신문을 권력에 빼앗겼으나 내 청춘에 후회는 없다”는 위상욱 회우.

한국일보 견습기자로 출발... 조선일보 거쳐 ‘새마을신문’ 창간... 신군부 압력으로 물러나... 지금은 아들 경영 첨단

신문기자에서 발행인으로

1967년 韋회우는 조선일보로 옮겨 2년간 사회부에 근무했고, 2년 뒤 제2사회부장으로 12년간의 일간신문기자를 마감한 뒤 1970년 ‘주간시민’을 창간한다.

-신문기자를 그만 두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이유지요. 첫째는 술에 절어 산 탓인지 B형 간염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말짱 하다가 오후만 되면 나른하여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없었죠. 술과 담배를 끊고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김현옥 시장이 부르더니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홍보 신문이 필요하며 박 대통령의 내각까지 받았으니 맡아 달라는 제의를 했어요” 韋회우는 “김 시장은 열정적이고 추진 동력이 대단했다”고 강조하면서 낙내임이 된 ‘불도저 시장’도 그가 붙였다는 것.

-시 홍보신문 대신 ‘週刊시민’을 창간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관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말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내가 직접 신문을 만들겠다고 제의하니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일간신문을 창간하려니 자금동원 등 걸림돌이 만만찮았다. 서울시청 알선으로 당시에는 큰돈인 4,000만원을 융자 받고 운전기까지 구입했는데,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김 시장이 물러나 물거품이 됐다.

그는 일간지 창간은 무산 됐으나 주간지라도 만들어 볼 요량으로 가족회의를 열었다. 보르네오가구 창업주인 형(韋相植)의 도움과 십시일반으로 자본금을 모아 1970년 주식회사 ‘週刊시민’을 창간, 대표이사 발행인을 맡았다.

-‘週刊시민’의 반응은?

“창간에 참여한 멤버들은 쟁쟁했으나 제작비와 인건비 등 적자누적을 감당할 수 없어 판권을 넘기고 3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현재 발행 중인 ‘주간매경’의 전신이 ‘週刊시민’이라는 것.

-새마을신문을 창간한 계기는?

“1970년 초 박정희 대통령의 발의로 일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확산될 무렵인 이듬해 김현옥 씨가 내무장관에 임명됐어요. 늘 내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1973년 창간하게 됐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던 새마을운동의 열기와 내무부에서 신문을 구입하여 전국 이장들에게 무료 배포까지 했으니 경영은 잘 되었겠네요?

“10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신문 1면의 칼럼은 직접 쓰고 장관과 동행하여 전국 곡곡을 누비며 취재 했지요.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동생 전경환씨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마을신문사를 양도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캔두 정신 심어준 새마을운동”

-아무리 서슬 퍼런 시절이지만 대가도 없이 순순히 양도했나요?

“내 주지 않으면 내무부가 새마을신문 구입을 중단하여 경영 압박을 받을 것은 뻔하고, 형제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 전 씨의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

회우초대석

〈43〉

인터뷰 글 · 사진

새 청춘 후회는 없다”

韋相旭

- 전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 전 조선일보 제2사회부장
- 새마을 신문 창간 사장
- 위성시스템 회장(현)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의 했어요. 하나는 공무국 직원들의 일터를 지키고 인쇄시설만이라도 살리고 싶어 인쇄 권한은 계속 맡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전 씨가 측근을 보내 주간공업신문을 창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신문 허가가 나오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1981년 9월 전경환씨는 새마을신문 대표이사가 됐다. 이듬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경리부장을 통해 관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나 신문사를 빼앗긴 울분은 삭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새마을신문을 강탈당하기 전 새마을신문 제작자들과 찍은 기념사진. 가운데 노란티셔츠에 콧대를 입은 이가 위 사장. 왼쪽이 부인 윤우근 여사.

새마을신문’ 창간 업체서 ‘消日’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상당 기간 마음고생이 심했지요. 교회 권사인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간병 덕에 간염도 항체가 생겨 말끔히 나았고, 마음의 치유를 하니깐 편안해졌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새 청춘에 후회는 없습니다.”

-새마을신문은 빼앗겼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캔두(can-do) 정신을 국민에게 불어넣은 정신운동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마을에 시멘트를 무료로 공급한 뒤 스스로 성과를 낸 마을에는 더 지원하되 자립 의지가 결여된 마을은 제외시킨 경쟁의식 고취가 성공요인이죠. 이승만, 장면 정부 시절에도 7개년, 5개년 개발계획을 입안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강력한 자립정신을 투입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하는걸 보면 성공사례가 아님니까.” 가난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를 일군 근면 자조 협동의 새

마을정신을 오늘에도 되살려 나가야만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강조한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을 못 구해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인다.

-비록 소수의 견해지만 새마을운동을 북한의 ‘천리마운동’ 등에 반응한 냉전의 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인민의 착취로 실패했지만 우리는 토지개혁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면 내 땅을 가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잠재력을 농민들에게 일깨워준 게 성공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만보 걸으며 건강관리”

-韋씨는 매우 드문 성인데...

“본관은 강화로 단본이지요. 시조 위

生活斷想

이름을 바꾼 까닭

나 ‘김건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김윤재(金輪財)’로 신탄(新誕)했다. 두 달 반 동안 법원의 판결을 거쳐 호적과 동적까지도 모두 바꾸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그리고 은행통장, 세무서 신고까지 하면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

“왜 굳이 이름을 바꿔야 했을까?” 옛날 이름도 좋는데! 친구들의 말이다. 아마도 그것은 내 이름에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실 내 이름에 대해 많은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 일본인들 이름에 健二(겐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건이’라는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름을 떠올려 나를 ‘이건이’이라고 잘못 부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 하나는 전화로 이름을 물어볼 경우 한자 한자를 떼어서 불러주어야만 내 이름을 정확히 받아 적는 사례도 다반사로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이름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2011년 10월 쯤 ‘한국정신과학회’ 모임 때 유명한 작명가가 연사로 나와서 인간에게 붙여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사는 법학박사 안동연(安棟戀)이라는 분이였다.

“인간의 사주팔자와 이름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Name is Energy” “Name is Everything”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며, 이름에 모든 것이 있다는 불교, 유가, 朱子, 탈무드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 좋은 이름을 가진 자는 반은 성공한다는 독일의 속담도 소개했다.

나는 강연이 끝난 며칠 뒤 안 박사를 찾아가서 즉석에서 개명을 요청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성명학상의 수치로 보니 좋은 점은 전혀 없고, 나쁜 점만이 암묵되어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병장수에 재복까지 따르는 이름으로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50만원이 들었다.

그 이름이 바로 金輪財다. 부수를 전부 합치면 8, 15, 10으로 모두 33자가 된다. 재물을 모으고 명성을 천하에 떨칠 수 있는 격이다. 이름을



김윤재(舊名 김건이)

- 본회 회우
- 전 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짓는 데는 한자뿐 아니라 한글 발음 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또 이름 부수에 따른 음양도 고려해서 지어야 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이 이름을 가졌더라면 친구들에게 밟도 사고 적선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영광을 더 보

려고 이름을 바꾸었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번 개명을 계기로 성명학, 명리학, 그리고 학문 중의 학문이라는 ‘주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2012년은 내가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나는 이 공부 가 잘 되면 손자 이름도 바꾸어줄 예정이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까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과거 이름만 아는데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름을 바꾼 후부터 나의 하루하루가 한결 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김건이’라는 이름을 버리면서 이렇게 위로했다.

“김건이님! 그동안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김건이’는 ‘김윤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김건이 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자리하셔서 편안한 여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4일 동안 그렇게 염을 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사흘 뒤 내 몸에서 나와 똑같은 모습의 유체가 빠져나가면서 나를 찌러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내가 무덤에서 몸이 빠져나오는 경험도 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 따른 자그마한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내 육체가 ‘나’인가. 내 이름이 ‘나’인가. 나는 나의 육체도 아니요, 내 이름도 내가 아니다. 나는 오직 무아(無我)일 뿐이다. ‘나’란 없는 것이다.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공(空)이다. 무(無)란 무한한 에너지가 잠재된 상태이며 꽉 채워져 있는 공간이다. 가장 위력이 강한 파장은 無파장이다. 무아의 경지는 모든 형태로의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나오는 빅뱅 이전의 상태가 無의 상태다. 이제 나는 무아의 존재로서 자유자재한 인간이고 싶다. ☞

과 ‘韋相旭 칼럼선집’, ‘새마을 運動과 農村’ 상하권(1981)이 있다.

-건강관리는?

“몸은 건강한데 기억력이 가물거려요. 예전엔 수영도 곧잘 했으나 지금은 헬스클럽에 들러 역기를 가끔 듭니다.

일주일에 나흘 정도 만보걷기를 꾸준히 하는 편이죠”

양카라공원에 들러 사진촬영을 한 뒤 공원을 몇 바퀴 돌아야 만보를 채운다며 돌아서는 老 기자의 어깨에 포근한 겨울 햇살이 일렁인다. ☞

식생활의 서구화로 환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통풍이라는 병이 어떤 질환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통풍을 순서에 넣은 것은 내가 20년 동안 통풍에 붙들려서 15년동안 꼼짝없이 그 싫은 복약(服藥)을 부득이 한 일은 경고를 위해서도 알려야 될것 같아서다. 그리고 주문해두었던 책 ‘로마제국 쇠망사’를 쓴 ‘기번(Edward Gibon1·737-1794)’의 자서전이 왔길래 읽어보니 ‘기번’도 말년에 앓았던 병이 통풍이다. 통풍은 당뇨병 비슷하다.

그래서 통풍과 당뇨병은 인접병이다.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이거나 인슐린의 기능저하로 세포가 처리못한 당분이 피속에 과잉상태가 되어 여러가지 장애(병발증)가 일어나는 병이라면 통풍은 요산(尿酸)이란 물질이 피속에서 과잉상태로 있는 고요산혈증(高尿酸血症)이 발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격심한 통증을 불러 일으키는 질병이다. 그 통증은 엄지 발가락 밑 동치(관절) 무릎 등에 며칠씩 한시(限時)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피속의 요산이 높은수치로 있게 되므로 피가 걸쭉해져서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장애가 생길 뿐더러 요산을 걸러내는 신장에 중대한 기능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이른바 통풍신(痛風腎)이 되어 그것이 도지면 투석을 하게 되는 대단히 무서운 병이다

통풍이 나를 찾아 온 것은 1986년, 난데없이 오른쪽 무릎뼈 찌미 붓고 아프기 시작했다. 관절 전문이라는 단국대학쪽 한강변의 어떤 병원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 했더니 무릎에 주사를 한대 놓았다. 통증은 곧장 사라졌지만 1주일이 안돼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뒤에 알고보니 그 주사는 부신(副腎) 호르몬제였다. 혈액검사도 하지 않고 통풍에 놓아서 안될 주사약을 직효성만 따져서 놓았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에게 이런 의사는 악인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통풍인줄은 모르고 통증에 겁이 덜렁 나서 그 뒤론 20년 가까이 상중하게 되는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통풍이라고 했다. 혈액검사 끝에 자세한 설명없이 요산생성을 억제하는 아로폴리놀이란 약을 복용하라고 했다. 무슨소리. 고기 안주로 술을 계속마신 결과로 보이니 술을 끊고 육식도 줄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는 다르다고 할 정도로 식습관을 바꾸어도 피속의 요산수치는 9를 가리키고 대단한 통증이 엄지발가락 밑 동치의 관절에 왔다. 격심한 통증으로 해서 아플통(痛)자, 바람풍(風)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했다는데 그 통증은 대개는 1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더니 식으로 멀쩡하다. 그러나 피속의 요산치는 그대로이므로 그냥 두면 혈압에, 심장에, 신장에, 뇌혈관에 무서운 장애가 오게 된다. 그러므로 가끔씩 찾아오는 통증을 ‘하느님의 경고’라고 한다던가.

요산 생성의 메커니즘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그 프로세스를 압축하면 핵산의 찌꺼기가 요산인데 핵산은 신진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 ①⑥

난치병 통풍 전말기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대사에 의해서 파괴되는 세포의 핵을 말하며 핵산이 분해되면서 퓨린체라는 물질이 생기고 이 퓨린체가 최종적으로 요산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연소되고 난뒤 핵폐기물이 생기듯이 유전자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핵산의 자료가 퓨린체이며 퓨린체는 요산의 자료가 되는 연쇄적인 관계에 있으니 그 프로세스는 복잡하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음식 섭취에 의한 생성과 몸속에서 생성되는 두가지 경로에 의해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1200mg정도의 양이 체내에 풀(pool)되어 있으며 매일 500mg은 오줌으로, 200mg은 땀으로 배설됨으로써 생성과 배설이 되풀이

가 대체로 잘 먹고 잘 마시며 성격이 활발하며 공격성이 있는 화통한 남자들에게 많으므로 내로라 하는 남자들이 아파서 끄끙대는 것이 코미디로 비쳤음이 분명하다.

역사상 유명한 통풍환자 명단을 보면 통풍이 희극이란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한가락

정도가 아니라 절세(絶世)의 영웅들과 이름난 작가·시인·정치인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대충보자.

마케도니아의 정복왕 알렉산더 대왕이 통풍 발증으로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대제국을 건설한 원(元)나라 세조(世祖) 쿠빌라이, 서로마황제 카르대제, 잉글랜드 국왕 헨리7세, 그의 아들 헨리8세, 태양왕 루이14세, 영국 여왕 앤, 영국 조지4세, 미국의 독립

神의 경고와 죽음의 四重奏

되면서 일정량이 체내에 풀리는데 요산 배설이 잘 안되거나 체내 생성과 음식으로 섭취한 과도한 퓨린체가 고요산혈증을 일으킴으로써 통풍 발증이 되는 것이다.

퓨린체 함량이 많은 음식으로는 양, 곱창, 간장, 콩, 팥, 쇠고기, 장어, 멸치젓갈 등에 압도적으로 많고 대구, 광어, 송어, 잉어, 베이컨, 우설(牛舌), 칠면조, 간(肝)소시지, 매추라기, 송아지고기, 사슴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인데 요컨대 고량진미에 드는 음식에 요산의 원료가 되는 퓨린체가 많다. 그러므로 통풍을 아주 옛날에는 왕후장상(王侯將相)병이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금은 식생활이 서구화됨으로써 한국에만도 150만명 정도의 통풍환자가 있고 발증은 없으나 고요산혈증까지 치면 수백만의 예비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왕후장상병이 아니라 ‘바보병’이 아닌가 싶다.

요산치는 나이에 따라 다르고 남자는 높고 여자는 약간 낮다. 사춘기까지는 성인보다 낮고 사춘기 이후는 어른의 요산치에 가까워지는데 여성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요산치를 억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통풍환자는 남자가 여성의 20배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여자에게는 류머티스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류머티스는 비극이요 통풍은 희극”이라는 말이 있다. 통풍환자

선언문을 기초한 프랭클린, 미국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 작가·시인으로는 괴테, 스탕달, 모파상, 밀턴, 테니슨, 로웰, 이어서 종교개혁자 세 사람이 등장한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 스코틀랜드의 녹쿠스, 영국의 웨슬리, 학자로는 프랜시스 베이컨, 혈액순환의 발견자 하베이, 진화론의 다윈, 만유인력의 뉴턴, 식물분류학의 칼 린네, 병리학자 콘하임,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기번은 글머리에 쓴 바다.

역사상 유명한 통풍환자를 다 열거하자면 ‘병은 낫는다’ 16회분을 다 채울것인데 그렇다고 통풍환자가 되어 나도 상당한 인물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면 웃기는 이야기가 된다. 양, 곱창,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소주와 맥주를 마셔대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것은 예정코스다. 술 가운데서는 맥주의 퓨린체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 맥주는 과음하면 위산(胃酸)을 양산해서 위장벽을 허문다.

통풍에 걸려 발증(發症)이 안되더라도 피속의 높은 요산치를 방지하면 앞서 열거한 장애 말고도 심혈관장애, 고지혈증, 대당능이상(對糖能異常) 등을 불러오게 되는데 대당능이상은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통증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지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음의 사중주(四重奏)’로 일컬어지는 메타볼릭신드롬(metabolic syndrom)은 통풍에 당뇨병, 고혈압, 비만이라는 생활습관병이

겹쳐 졌을때를 일컫는다. 다위험인자 증후군(多危險因子 症候群)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4가지를 다 갖추었으나 사중주가 장송곡이 되기전에 탈출한 셈이다.

통풍에는 그 외의 고약한 증상이 있다. 손가락, 발가락과 귀 따위에 생기는 결절이다. 결절(結節)은 글자 그대로 마디가 맺힌다는 뜻이다. 발가락 관절에 마디가 생겨서 개발처럼 된다. 나의 오른쪽 귀의 윗쪽테가 딱딱한 것은 통풍이 남긴 자국이다. 의성(醫聖)으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통풍을 ‘뭇생긴 발’을 뜻하는 ‘포다그라(podagra)’라고 불렀다. 통풍약이 개발되기 전 민간요법으로 대처하던 옛날에는 흉측한 ‘포다그라’가 흔했던 모양이라 기괴한 ‘개발’이 사진으로 남아있다.

통풍의 원인인 요산을 배설하거나 생성을 저해하는 약은 있으나 통풍을 근치(根治)하는 치료약은 없다. 완치약은 아니지만 통풍약은 다른 질병에 비해 개발이 순조로웠다고 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제왕과 봉건영주들을 비롯해서 저명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통풍약 개발이 빨랐던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가능하다.

통풍에 일단 걸리면 식생활 개선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요산 배설약이나 요산생성 저해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약이든 약복용을 기피하는 나같은 사람도 15년 동안이나 아로폴리놀이라는 요산생성 저해제를 복용한 것이다. 달아날 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통풍으로 부터 내가 탈출하는 기회가 76세 때 기적처럼 왔다.

그 기회를 가져온 것은 또 하나 불치라는 당뇨병이다. 통풍과 당뇨병은 인접병이라서 곧장 건너 온 것인가? 두 가지 병을 앓게 된 나는 거창하게 건곤일척(乾坤一擲), 운명을 걸고 승부를 걸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과 함께 받은 약을 쓰레기 통에 집어넣고 대학 노트에 검당일지(檢糖日誌)라 써 붙였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루의 섭취 칼로리를 반정도, 1500 칼로리로 잡고 하루에 1만보씩 걷던 운동량을 배로 늘려서 어김없이 하루에 2만보씩을 걷기 시작했다. 그 귀찮은 혈당검사를 하루에 대 여섯번 씩 해서 섭취 칼로리와 운동량이 혈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챙기고 보행수가 모자라면 밤중에도 집 가까운 삼청공원에 가서 인적 드문 숲길을 지치지 않고 걷는 나의 끈질긴 의지에 아마 통풍과 당뇨병이 이거 안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6개월을 계속하자 체중이 17kg이나 줄어 피골이 상접한 낮은 노인이 나타났다. 72kg에서 55kg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60kg. 80세인 지금은 어떤 약도 복용 하는 게 없다. 어떤 음식에 퓨린체가 많은지 당수치를 올리는지 흰하다. 그러나 내가 당뇨, 통풍, 고혈압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책으로 쓰지 않고서는 전모를 살피기가 어렵다. ㉠

통 MBC.
통! 대한민국



당신과 나를 이어주는

소통

MBC

溫故知新

-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 님께서 강을 건너시다가 / 물에 빠져 돌아가시면 / 가신님을 어이하리오!

고조선 때였다. 아리수 나무의 군졸 괭리자고(霍里子高)가 어느 날 머리가 허영게 쏜 미친 사내가 물에 빠져 죽고, 그 뒤를 따라 그의 아내도 물에 뛰어들어 죽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았다. 집에 돌아온 괭리자고는 아내 여옥(麗玉)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옥이 공후(箜篌)로 그 애달픈 사연을 노래하니 듣는 이마다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기록으로 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인 ‘공무도하가’이다.

- 오락가락 피꼬리는 / 암수 한 쌍이 즐거운데 / 외롭구나, 이 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이는 ‘공무도하가’ 다음으로 오래된 우리나라 고대가요 ‘황조가’로서 고구려 제2대 임금 유리명왕(琉璃明王)이 지었다. 유리명왕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외아들로 서기전 57년에 유복자로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추모(鄒牟·朱蒙)가 북부여에서 졸본부여로 망명했기 때문이다. 유리는 못 말리는 개구쟁이였다. 그때 집에는 할머니 유화부인(柳花夫人)과 어머니 예씨부인(禮氏夫人)이 있었다. 유리는 신궁(神弓)으로 이름난 아버지를 빼닮아서 활을 잘 쏘았다. 얼마나 잘 쏘았는가 하면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도 아이들과 어울려 활을 쏘며 놀다가 한 아이가 말했다.

“유리야. 저기 물동이 이고 가는 아주마이 보이지 않습둥? 저 아주마이 물동이를 한 번 쏘아보지요. 기런데 물동이가 깨지면 안 되구, 구멍만 뿜 뿜어야 하는 기야. 알갔네?”

“아새끼래 별 걸 다 시키누만. 기러문 내래 한 번 쏘보디 뭐!”

유리가 활을 들어 힘껏 시위를 당겼다. 놓으니 화살이 날아가 물동이를 꿰뚫었는데, 물동이는 깨지지 않고 구멍만 뿜 뿜었다. 뿜린 구멍으로 물이

콰콰 쏟아져 나오자 물동이를 이고 가던 아낙네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야, 이 애비 없는 호로새끼야! 이 따위 개망나니 짓은 뉘기한테 배운 기야? 네 할마이가 가르쳐주든, 네 오마이가 가르쳐주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은 유리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오마니! 내래 와 아버지가 없시오? 어드렇게 된 영문이야요? 사람들이 호로새끼라고 놀려먹어서 내래 화통 터져 못 살겠시오!”

예씨부인이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야, 기렇게 기죽을 거 없어야! 네 아버지래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요. 부여국 임금과 왕자들이 잡아 죽이려니끼니 저 멀리 졸본 땅으로 망명해 나라를 세우고 대왕이 되신 분이디.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누만! 기런데 네 아버지가 달아날 때 이 오마니한테 이렇게 이르고 갔디. ‘만일 아들을 낳거든 내가 남긴 신물(信物)이 일곱 모난 돌 위의 소나무 밑에 묻혀 있다, 그 신물을 찾아가지고 오면 내 아들로 인정하갠다’, 이러고 가셨다 그 기야! 알갔네?”

그 말을 들은 유리는 그때부터 그 신물을 찾으려고 온 사방을 쏘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가 뒷마루에 앉아 있다가 물끄러미 바라보니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뭔가가 보였다. 그랬다! 집 기둥이 소나무요, 주춧돌이 일곱 모였던 것이다. 기둥 밑을 뒤져보

‘公無渡河歌’와 ‘黃鳥歌’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니 과연 부러진 단검이 있었다.

그리고 십년이 흘렀다. 어느 날 고구려에서 밀사가 와서 아버지 추모성왕의 말을 전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고구려로 오라는 것이었다. 유리가 어머니 예씨부인을 모시고 고구려로 찾아가자 대왕은 부러진 칼을 맞춰보고 매우 기뻐하며 반겼다.

그때 고구려에서는 추모성왕의 두 번째 부인인 소서노(召西奴)가 황후 노릇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전 남편 소생인 비류(沸流)와 온조(溫祚) 형제가 태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추모대왕이 적자 유리와 본부인 예씨를 급히 부른 까닭은 고구려 건국에 공이 크고, 졸본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소서노와 계루부(桂婁部)의 압력에서 벗어나 대위를 적자에게 넘기려는 데 있었다. 대왕이 적자 유리를 태자로, 본부인 예씨를 황후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소서노와 비류·온조 3모자는 원한을 품고 저주를 남긴 채 추종세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망명했다. 이들이 백제를 건국했다.

서기전 19년 9월. 당세의 영웅 추모성왕이 재위 19년 만에 세상을 버리니 그때 나이 아까운 40세였다. 뒤를 이어 유리명왕이 즉위했다.

유리명왕은 즉위 이듬해인 서기전 18년에 다물국 송양왕의 딸과 혼인하여 황후로 맞아들였는데, 송씨는 겨우 한 해 뒤에 죽었다. 유리명왕은 골천 사람의 딸 화희(禾姬)와 한나라 사람의 딸 치희(雉姬) 두 여자를 후실로

맞았다. 황후가 죽기 무섭게 두 여자를 후실로 들인 것이 화근이었다. 두 여자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섭게 사랑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대왕은 양쪽 양쪽에 궁실을 따로 지어 두 여자를 떨어져 살게 했다. 어느 날 대왕이 사냥을 나간 틈에 두 여자는 머리채를 잡고 꼬집고 물어뜯으며 대판 싸웠다. 싸움 끝에 화희가 치희에게 이렇게 결정타를 날렸다.

“야, 이 더러운 한나라 오랑캐 년아! 오랑캐 년 주제에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기야, 날래 꺼지라우!”

치희가 오랑캐란 소리에 울며불며 자기 나라로 달아나버렸다. 사냥에서 돌아온 대왕이 어느 한 ‘떡’이라도 놓치지 않은 욕심에 말을 달려 치희를 쫓아갔다. 하지만 한 번 맺힌 여자의 원한이 쉽게 풀리랴. 아무리 달래도 치희는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치희를 놓쳐버린 대왕이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쉬다가 암수 피꼬리가 즐겁게 우짖으며 노니는 모습을 보고 읊은 노래가 바로 ‘황조가’이다.

우리 민족 정서의 두 줄기 큰 흐름이 바로 흥(興)과 한(恨)이다. 집단적 놀이문화에서 흥이 비롯되었다면 한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니 ‘공무도하가’와 ‘황조가’ 같은 노래가 바로 그러한 정한의 표출이었다. 우리 조상은 천손족(天孫族)이란 자부심과 더불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랑이란 인간의 본질적 감정을 노래에 실어 표현할 줄 알았다. 노래는 비록 부드럽지만 그 힘이 끈질기기는 고대와 현대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신명(神明)과 정한(情恨)의 정서가 우리 민족 고유의 풍류정신(風流精神)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요즘처럼 갈수록 인정이 메마르고 세태가 각박해지는 정서불안, 정신황폐화 시대에 사람들의 가슴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누구나 피꼬리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잡세들의 울부짖음을 좋아하겠는가.

☞

한반도 운명은 미군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미군이 2차대전 때 레이더와 원자탄으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자유독립이 없었을 것이고 6·25때도 소련무기로 무장한 북한침략군을 강력한 미지상군과 공군력 해군력으로 차단하지 않았더라면 낙동강방어전선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었다.

한국전에서 미군은 북한군 중공군의 야간침투작전에 걸려 악몽을 치렀다. 60년만인 지난 해 5월 빈 라덴작전을 완벽한 야간작전으로 성공함으로써 그 악몽을 완전히 극복했다.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기술과 철혈 같은 밤이라도 대낮같이 작전할 수 있는 고광도레이저작전체제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 헬기들은 파키스탄 국경수비대의 레이더망을 스텔스기술로 완벽하게 피한 후 감감한 그믐밤에 도심전기 마저 절단해버린 수도 이슬라마바드근처의 빈 라덴 은신처를 습격했다. 사살된 빈 라덴 시신과 컴퓨터자료

민첩한 美軍과의 동맹

등을 챙겨 신고 아라비아 해로 유유히 빠져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40분이었다.

빈 라덴의 사살, 카다피정권의 전복,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철수를 기점으로 미군은 보다 작고 날렵한 기동군시대라고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선언했다. 소규모 특수전 개념은 테러리스트들이 먼저 구사한 것이지만 미군도 체제를 결국 그런 소규모 타격군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병력규모는 향후 10년간 지금의 57만명에서 49만으로 줄이고 국방투자를 정보수집분야와 사이버



정일화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정치학 박사

전을 우선적으로 하여 앞으로 사이버전의 공격과 방어, 특수작전 전개, 정보수집과 정찰 임무강화 쪽으로 전술 전략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냉전시대의 대규모군 단주의를 마감한 작고 날렵한 신작전개념의 내용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에서 이미 무인정찰기 활약과 특수 침투군 작전으로 잘 표현되어 왔다. 무인정찰기는 작전지역을 24시간 공중감시하면서 수상한 표적은 사정없이 폭격하고, navy seal 같은 특수침투군은 험한 산계곡이나 거리의 데모군중 속에 사정없이 스며들어 직접

표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인공위성통신을 통해 지원전투기를 불러와 표적을 공격케 하기도 했다. 특수침투군은 3명 또는 10명이내의 작은 조를 이루면서 3만피트이상 되는 공중이나 깊은 바다를 통해 작전지역에 침투한 후 단숨에 적의 사령부, 사령탑을 제압하여 적을 마비시키는 개념이다.

한국군도 전자전, 특수전을 포함한 신작전개념의 군 개혁을 수년전부터 시도해 왔고 지금도 그런 계획을 갖고 육·해·공·해병대사이에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해 빈 라덴작전 때 미군은 어떤 형식으로든 우방인 파키스탄군과 협력을 하고, 정 안되면 작전 마지막에라도 파키스탄군을 참여시킬 것을 고려했지만 야간작전 장비나 야간작전 개념이 전혀 없는 파키스탄군을 참여시키면 작전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결론을 갖고 결국 미군 단독작전으로 갔다. 미군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국군의 작고 날렵한 군개념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



해킹, 바이러스, 불법스팸, 개인정보침해 등 인터넷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이용 중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는 전국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스팸문자를 받으셨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셨나요? 해킹 당하셨나요?
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개인정보침해 등 인터넷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 이용 중 궁금한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관련 상담은 **@118**

겨울철 치명적인 落傷에 조심하자

요즘처럼 눈이 오고 추운 때에는 길에서 미끄러지기가 쉬운데 젊은이들에게는 단순히 넘어지는 일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올해 들어서 아직 큰 눈은 내리지 않았으나 기상청의 2월 예보에 따르면 차고 건조한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후 후반에 회복되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는 예보여서 낙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들에게 낙상 빈도는 상당히 높아 65세 이상 노인의 1/4이상이 경험하며, 매년 2~3% 정도가 심각한 손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언론인회 회우의 연령분포를 보면 주로 65세 이상이고 그중 70대가 가장 많아 특히 낙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낙상의 가장 흔한 손상은 골절로 손목에 많이 생기며, 고관절부위 골절이 제일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골절치유가 비교적 쉽고 골절발생 전 상태까지 회복이 가능하지만, 노인의 경우 골절자체가 유합이 안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져 침상생활 증가에 의한 전신쇠약이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해야한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필자의 모친도 고관절 골절로 인해 2년간 병상에서 고생하다가 사망해 노인들에게 낙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골절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골절치유가 안되고, 수술 후 오랜 재활기간이 필요하며, 심하면 장애를 남기기도 한다.

그 밖에 비교적 드물지만 낙상에 의한 심각한 손상으로는 외상성 뇌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장기간의 재활치료 또는 영구적 장애를 가져와 환자와 가족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낙상의 요인은?

노인들에게 낙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화에 의한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기능저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그 외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 불가피한 약물에 의한 반응, 계절적 요인, 실내의

환경적 요인 등이 결합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건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는데 기본적으로 근력강화운동과 평형감각운동을 병행하면 낙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낙상예방 지침을 지키도록 하자.

◆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 ① 근력강화를 위해서 체조 등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② 날씨가 추울 때는 근육이 굳지 않도록 옷을 많이 입도록 한다.
- ③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

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다.

요즘 눈길이나 얼음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시중에 나왔다.

- ④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며 보폭을 줄인다.
- 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 ⑥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 ⑦ 버스나 전철에서 타고 내릴 때 서두르지 말자.

◆ 집안은 이렇게 바꾸자

- ① 실내조명을 밝게 개선해야 한다.
- ②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 ③ 노인방은 넘어지더라도 충격을 적게 하는 바닥재나 카펫 등을 깐다.
- ④ 카펫 가장자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카펫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 고정한다.
- ⑤ 목욕탕에는 타일에 미끄러지지 않게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 방지처리를 한다.
- ⑥ 노인방은 세면대와 목욕탕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한다.
- ⑦ 한밤중 화장실 갈 때 손전등을 곁에 뒀 필요 시 사용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낙상을 예방해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막아야 하며, 특별히 여성은 낙상에 의한 골절예방을 위해 평소 골다공증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K]

이보길 편집위원

‘鍼의 모든것’ 강의

토요 건강포럼 2월18일 개최

2월 토요건강포럼은 세인들의 관심이 많은 ‘침과 뜸’에 대해 침술가의 강의를 마련했다.

강사는 한국침술연합회 이석기 회장으로 이 회장은 우리 전통 침구술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침술인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일침이구 삼약(一鍼 二灸 三藥)’병이 나면 우선 침과 뜸을 통해 치료하고, 약은 필요한 경우에 처방한다는 우리민족 전통의술인 침술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침술의 발상지는 우리나라로 기원은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증거로 중앙박물관에 보관돼있는 구석기 시대의 ‘돌침’을 들 수 있다.

이 ‘돌침’은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 손평동 패총에서 발굴된 것이다.

침술이란 가늘고 예민한 바늘로 인체의 일정한 부위혈(穴·침자리)-經穴, 奇穴, 新穴-에 자극을 주어 인체의 기혈(생체 에너지)을 조절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이다.

‘침’은 음양평형조절에 좋으며 ‘뜸’은 면역력 증강과 건강증진에 좋다.

침구술은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조 까



강사 이석기 회장

지 내려오면서 큰 발전을 이룩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에 전파돼 현재 새로운 진료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구사 자격시험이 수십년간 실시되지 않으면서 침구사수가 급속히 감소해 대부분 80을 넘은 고령의 침구사 40여명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민족의술인 침구술의 퇴보가 우려되고 있다.

“침(鍼) 만한것이 없사옵니다.” 이말은 세종15년 1433년 세종에게 전의가 상언한 말로 세종은 한글 창제와 아울러 침술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강의는 오는 18일 오후2시부터 을지로 입구역 외환은행 건너편 명동입구에 있는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 (한국성과학연구소) 홀에서 열린다.

토요건강포럼은 올해부터 ‘나의 건강생활’이란 코너를 신설, 약 5분간 참여회원들의 건강비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코너는 회원 여러분의 신청에 따라 매회 한 분을 모시기로 했다. [K]

회우들이 펴낸 新刊

김길홍 회우 ‘선비의 삶 정치의 길’

김길홍(전 경향신문 정치부장·전 국회의원) 회우가 자서전 ‘선비의 삶 정치의 길’을 펴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허화평 전 대통령 정부수석비서관이 죽간사를 쓰고 총 13장 부록으로 편성돼 있는 이 책은 가난한 시골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혼자 출향

해 황금 같은 청장년 시절, 서울에서 언론계와 정치판에서 치열한 경쟁과 승부의 삶을 살아온 저자의 진솔한 행적을 정리한 ‘기록’이다. 연대순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저자의 삶에 큰 획을 그었던 언론인,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시절로 크게 나뉘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생각을 담았다.

특히 성장과정에서부터 정치에 입문하게 된 사연, 정치현장에서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



지 않은 사건들을 생각하고 느낀 대로 진솔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한 족적은 한편의 정치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또한 후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5·18 광주 사태, 전직대통령의 소추 등 민감한 정치이슈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밝혀 박진감을 더해준다.

‘신 의와 보은 저버린 대통령들’과 ‘좌익세력 척결은 보수정권의 책임’ ‘역대 대통령들과의 인연’ 등 숨겨진 이야기들은 신뢰를 증시했던 저자의 정치안목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책 후미엔 저자가 직접 쓰고 정리한 국회본회의 연설문과 신문기자 시절의 데스크 칼럼, 조고(祖考) 선고(先考)의 비문도 실었다.(J) [K]

(아담과 달리 출판사·485쪽·값 15,000원)

언론진흥재단 청렴도 평가 수직상승

언론가 소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8.89점으로 준정부기관 5개등급 중 우수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았다.

언론진흥기금 560억 7,10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년 언론진흥기금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560억 7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성규모는 자체수입 103억3,500만원,

국고 출연금 100억원, 여유자금 회수 356억8,600만원이다. 운용규모는 기금사업비 230억6,900만원, 여유자금운용 320억4,400만원, 기금관리비 9억5800만원으로 편성됐다.

관훈클럽 관훈언론상 시상

관훈클럽(총무 김민배)은 2012년 1월 11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55주년기념식을 갖고 제29회 관훈언론상과 제23회 최병우기자기념 국제보도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29회 관훈언론상 한겨레21 이어영 기자(부산저축은행 불법 특혜인출 특종) △제23회 최병우기자기념 국제보도상 KBS 시사제작2부 윤수희 기자

한국신문협회 발행인 포럼

전현직 발행인 모임인 신문발행인포럼(회장 김재호)이 전현직 발행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부산일보 사장에 이명관씨

부산일보사는 1월 19일 16대 대표이사 사장에 이명관 기획실장을 선임했다. 이사장은 1982년 부산일보에 입사한 뒤 서울 지사 정치부장, 편집국부장, 수석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4]

장지연 선생 서훈 취소 행정 법원서 무효 판결

위암 장지연 선생(1864-1921·사진)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국가 보훈처가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난 11월20일 위암의 후손이

국가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 유공자 서훈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란



사설로 한민족의 일제 항거를 촉구한 대표적 항일 언론인이다.

위암선생은 이같은 공로로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4월19일 그의 서훈을 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훈취소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고 대통령만이 그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며 "보훈처가 장선생의 서훈을 취소한것은 명백한 흠이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다. [4]

언론史에 길이 남을 秘話에 깊은 감명

요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는 많은 사담으로부터 출판기념회초청의 메시지가 날아온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명함 한 장 나누었을 뿐인 정치인이거나 혹은 정치지망생들이다. 그러다보니 최근까지만 해도 국회 안에는 출판기념회 포스터로 넘쳐났다고 한다.

얼마 전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책을 속성으로 뽑아내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집필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경쟁적으로 책을 펴내는 속셈은 책을 미끼로 지역주민과 기업체, 각종 인맥들을 동원,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선거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때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가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그 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를 펴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정치인들이 펴내는 소위 속성으로 뽑아내는 책들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은 평범한 이야기로 비쳐진다. 그러나 '그 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필자들이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이 책에 털어놓음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과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통쾌함, 그리고 온 몸에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지금까지 그럴 것이라고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이야기들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밝히지 못하다가 이 책을 통해 속 시원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막이 터지도록 못매를 맞으면서도 절대 취재원 안밖해 우리홈쇼핑 CEO로서 대주주들과 부정에

'실록-언론, 언론의 길'을 읽고



김용발

- 본회 회우
- 전 조선일보 기자
- 현 메디팜헬스뉴스 대표



언론계 외 일반독자도 읽게 했으면

동조하지 않아 YS 정부의 사퇴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YTN 개국 성공시켜 황용주 편집국장으로부터 5·16전날 군사혁명 거사 들어

이 책은 20년 이상 언론계에 몸담았던 퇴역기자 58명의 경험담을 엮은 책이다. 이들의 나이는 70대 초반에서 80대 중반까지다. 500여페이지의 한정된 지면에 58명의 글을 싣다보니 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만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58명이 걸여온 언론인생활을 압축한 '미니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에 따라 다소 내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적 글이 간결해 가볍게 읽을 수 있다.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 몇편은 읽을수록 박진감을 더해주는 비화여서 특별히 눈길을 끈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극비리에 판문점을 통해 평양을 방문, 김일성주석과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사실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회유와 신문을 당했지만 고막이 터지도록 못매를 맞으면서도 절대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얘기가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신문사를 떠나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의 전신)의 기획제안서의 작성에서부터 책임을 지고 어렵게 허가를 따내 사장에 올랐지만 회사부정에 동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경영에서 완전히 왕따 당한 얘기도 실려 있다.

사원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우뚝 세운 24시간 보도 전문 TV YTN 개국을 한 두 달 앞두고 사장교체를 단행하려는 김영삼정부의 압력에 당당히 싸워가며 차질 없이 개국을 성공시킨 일화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부산일보에서 5년차 기자로 재직하던 한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 사범동기인 황용주 편집국장으로부터 다음날 아침 5시 KBS방송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면 군사혁명이 성공한다는 빅뉴스를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 책에는 이밖에도 언론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비화와 특종이 다수 실려 있다. 이 책은 그래서 대한언론인회 회원들만 읽기에는 매우 아까운 책이다. 교보문고를 비롯 대형서점에 배포한다면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4]

▶ '실록-언론, 언론인의 길' 찾아가세요 ◀

대한언론인회는 이번에 원로 언론인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모은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를 출판 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이달 안에 본회 사무실에 나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출판한 한국언론 인물사화 제7권도 남아있습니다) 본회사사무실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전화 732-4797/4798 2001-7621

회우동정

(가나다 순)

동아일보사우회 회장 연임



김광희(동아일보 사우회 회장)회우=2011년 동우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동우회 회장에 연임 확정됐다.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문명호(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본회 논설고문)회우=금년 1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회 자문위원



박용윤(전 동아일보 출판국장대우)원로위원=지난 연말 (사)국립중앙박물관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박물관회는 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 언론인 흥종인씨가 초대 회장이었다. 박 회우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보로 지정된 116점을 동아일보에 ‘국보순례’ 시리즈로 남시욱 회우(당시 동아일보 기자·전 문화일보사장)의 해설기사와 함께 사진을 연재, 소개한바 있다.

‘이승만의 자본주의 정신’ 발표



손세일(청계연구소 소장·전 국회의원)회우=1월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있는 제11회 이승만 포럼(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주최·조선일보사 후원)에서 ‘이승만의 자본주의 정신’ 주제 발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취임

심의표(본회 이사)회우= 지난 12월 23



일 뉴스통신진흥회 제3기 이사에 취임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며 뉴스통신진흥자금을 관리하는 법정기구이다. 7명으로 구성되는 이사진은 국회 3명, 정부 2명, 방송협회, 신문협회에서 각1명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심의표회우는 방송협회 추천을 받았다.

국회전문지 ‘동행’ 고문 취임



윤종보(전 안동MBC사장)회우=지난해 12월부터 국회전문지인 ‘동행’ 고문으로 취임했다. 동행은 매월 2회씩 발간되는 국회전문 정치간행물이다.

고려 라이온스클럽 41년 개근상



제재형 본회 고문=지난 1월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고려 라이온스클럽 창설 41주년 기념식에서 ‘41년 개근상’을 받았다. 제고문은 이 클럽 창립 주역으로 초대 총무, 17대 회장을 역임했다.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연임



조창화(전 KBS기획조정본부장)명예회장=1월 16일 공익광고협의회 전체회의에서 2012 협의회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공익광고협의회는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광고업계 등의 대표 18명으로 구성되어 새로 발족했다.

사우회 소식

경향신문

회보 제46호 발행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이형균)는 금년 1월 1일자로 회보 46호를 발행했다. 회보는 이형균회장의 신년사와 송년회 분위기, 산악회, 경편회(역대 편집부장모임) 정우회(정판부 모임) 소식 등이 컬러로 편집돼 있다.

국민일보

신년 하례회 개최

국민일보 전직 사우회모임인 KMC 미디어클럽(회장 함정훈) 신년 하례회가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여의도 중화요리전문점 世洋園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사우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우의를 다졌으며, 또 국민일보 백화중 부사장, 김성기 논설실장, 최삼규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하여 회사 발전방향 등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모임의 경비는 본사에서 전액 지원했다.

동아일보

동우회보 24호 발행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는 1

월 25일자로 사우회보 24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된 이번 회보엔 2011년 정기총회 송년의 밤 소식과 제3회 몽도상 시상, 박경석 회우의 시론, 이병대 본회 부회장의 중국의 ‘환위안’을 비롯, 남시욱 회우의 인터뷰 기사 등이 실려 있다.

KBS

2012년 회원수첩 발행

KBS사우회는 2012년판 회원수첩을 발행했다.

KBS사우회는 또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 80차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을 공사이전 KBS 출신으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CBS

사우회보 17호 발간

CBS사우회(회장 조춘택)는 금년 1월 1일자로 회보 제17호를 발간했다. 회보에는 ‘함께하는 CBS 사우회’를 주제로 한 주춘택 회장의 신년사와 이재천 CBS 사장의 신년사, 동호회 소식 등이 실렸다. [ㄹ](#)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괄호안은 납입연도)

강두모(입회비·12년도 연회비)	계성일(12)	고덕환(12)	공대식(12)
구만완(12)	김규문(12)	김윤재(건이)(12)	김관태(12)
김길홍(12)	김상수(12)	김세경(12)	김영환(12)
김용발(12)	김정기(12)	김종열(10,11)	김지용(11,12)
김휴선(12)	김 화(12)	나용경(12)	남시욱(12)
동문성(12)	박문두(12)	박연호(12)	박재권(12)
서옥식(11,12,13)		성재삼(12)	소재필(12)
오건환(13,4)	오동환(12)	오인문(08,09,10, 11)	안상현(12)
윤기로(12)	윤기병(12)	윤양중(12)	윤흥섭(12)
이규섭(12)	이동훈(12)	이배영(12,13)	이병천(11,12)
이성호(12)	이순기(12)		이상갑(12)
이용권(12)			

이옥용(입회비·12년도 연회비)

이창호(11)

이철영(입회비·12년도 연회비)

이태영(12) 임덕규(12) 임상학(11,12)

임현대(12) 장창영(12) 전용호(12)

정기정(12) 정두진(12)

정덕교(09,10,11,12) 정범태(12)

정용기(12) 정재필(12) 조규만(12)

조봉균(12) 조성하(12) 최귀조(12)

최상목(12) 최신희(12)

최정호(입회비· 12년도 연회비)

한광수(11,12) 홍순일(12) 홍원기(11,12)

황대연(12) 황선용(12)

저서 보내주신 분

김길홍 회우= 자서전 ‘선비의 삶 정치의 길’ (2011년)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

구월환 회우= 이메일 주소 kwh2009@hanmail.net

유한준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1262 한양수자원 아파트 401-103(우449-160)

이민희 회우=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42 자양 5차현대아파트 502동 1304호
E-mail leeminh1@naver.com 전화 (02)703-7325

▶ 회우 경사 ◀

길윤석 회우= 2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 컨벤션 헤리츠 5층 프로그래밍을 장남 결혼

박문두 회우= 1월 14일(토)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 장남 결혼

이보길 회우= 2월 11일(토) 오후 5시 서울 로얄호텔(명동 천주교성당앞) 막내딸 결혼

이재원 회우= 2월 4일 낮 12시 남산 자유센터 웨딩홀 장남 결혼

▶ 회우수첩 새로 만듭니다 ◀

본회 회우수첩을 새로 제작중입니다.

회우 여러분의 신상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약력(3가지 이내),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 기재바랍니다.

보낼 곳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이메일 : kjc1405@hanmail.net 전화 732-4798 팩스 730-1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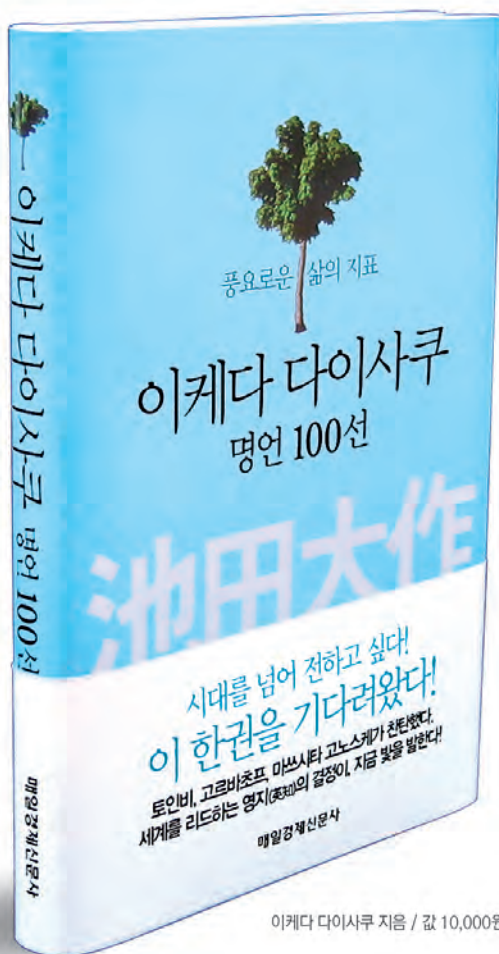


이케다 다이사쿠 명언 100선

한마디 말에 담긴 강한 생명의 울림!

20세기 최고 석학 '토인비',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찬탄한 '이케다 다이사쿠',
그의 시집 · 수필 · 소설 · 스피치 · 대담집 등 400여 권에서 엄선한 100가지 명언!!

“인생의 선배들, 그중에서도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힘에 부치는 고단한 삶 속에서 깨달은 것도 있고,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희망**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희망만 남아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은 항상 출발이자 영원한 시작이다.
- ***용기** 인생의 승리는 모두 용기에서 시작된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좌절하지 않는 용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용기……. 용기만이 벽을 부술 수 있다.
- ***일** 사회의 터전에서 일으키는 투쟁에는 신용을 얼마나 쌓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과 성의, 진심밖에 없다.
- ***정의** 참된 정의는 민중의 행복이고 평화여야 마땅하다. 어떠한 대의(大義)가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 불행한 사람이 생긴다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싶은데?

성공적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한국관광공사가 국제회의를 지원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유치 촉진과 국내 개최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회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국제회의 지원 계획을 공고하오니,
주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제회의 유치, 개최 의향이 있는 국내 주최단체

*지원대상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참가) 참가,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지원내용** || 국제회의 유치, 개최 활동

|| **신청 일정** || 2012년 상반기 접수기간은 2012년 2월 20일(월) ~ 2월 29일(수)

*자세한 일정은 추후 웹페이지를 통해 공지

|| **보조금 신청방법** || www.koreamice.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컨벤션팀 02)729-9552, 9557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국제회의 지원안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